

제 1 교시 나무아카데미 국어영역

1

1	③	2	⑤	3	①	4	④	5	④
6	②	7	④	8	④	9	④	10	③
11	①	12	①	13	②	14	②	15	①
16	⑤	17	④	18	②	19	③	20	⑤
21	④	22	③	23	①	24	⑤	25	②
26	④	27	⑤	28	⑤	29	②	30	③
31	①	32	①	33	⑤	34	④	35	②
36	③	37	④	38	⑤	39	⑤	40	③
41	③	42	②	43	⑤	44	③	45	①

[1~3] 화법
[지문 분석]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발표를 맡은 ○○○ 입니다. 저는 전통극과 관련된 문화유산 중 ‘예산대’(발표 제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발표자의 이름과 발표의 목적 및 주제 소개)

예산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산대’를 알아야 하는데요, 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입니다.('산대'의 의미 설명) 산대는 대개 고정되어 있었지만 『광해군 일기』에 사람들이 산대를 끌어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동이 가능한 산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모든 산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님.) 그중 하나(이동이 가능한 산대)가 바로 예산대인데, 이 명칭은 『성종실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산대의 구체적인 모습은 조선 영조 때 중국 사신단의 일정을 담은 『봉사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광해군 일기』, 『성종실록』, 『봉사도』를 언급하며 정보의 출처를 밝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전통 인형극을 위한 예산대의 전체 모습이 담긴 자료) 기이한 돌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질문을 통해 청중의 관심을 유도함.) 이것이 바로 전통 인형극을 위한 예산대의 전체 모습입니다.

우선, 예산대에 있는 인형들을 알아보까요? 수레바퀴 바로 위에는 선녀 인형과 낚시꾼 인형이, 그 위에는 원숭이 인형 등이 있습니다. 그림이 작아 잘 안 보일 테니 이 인형들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료 제시)(앞서 나온 자료를 확대한 것임. 새로운 자료가 아님.) 지금 보는 선녀 인형은 양팔을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낚시꾼 인형은 낚싯대를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해요. 그리고 원숭이 인형은 돌아가면서 주변 구멍에 얼굴을 내밀어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었다고 합니다.(자료에 나타난 예산대의 모습을 설명함.)

여러분, 예산대 위의 인형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산대 아랫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료 제시)(예산대 위의 인형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는 자료, 최근 예산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조를 재현한 그림.) 여기 보이는 수레바퀴(예산대 인형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함.)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 그림은 최근 예산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조를 재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산대를 이동하면, 예산대 내부의 톱니바퀴가 수레바퀴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면서 인형들을 움직였습니다.(예산대 인형이 움직

이는 원리)

이처럼 예산대는 이동 시에 인형들을 자동으로 움직여 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여 줍니다.(예산대의 의의) 여러분, 예산대에 대해 관심이 좀 생겼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청중의 반응을 확인함.) 여러분도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전통문화의 또 다른 예를 찾아 보면 좋겠습니다.(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함.)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문 확인]

- 갈래: 발표
- 주제: 전통극과 관련된 문화유산 ‘예산대’
- 특징
 -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 자료를 활용함.
 -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
 -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함.

1. <답> ③
<정답률> 94%
<정답 풀이>
발표의 목적이 ‘전통극과 관련된 문화유산 중 ‘예산대’를 소개’하는 것임은 밝히고 있지만,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의 ‘기이한 돌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 등을 통해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관심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광해군 일기』, 『성종실록』, 『봉사도』를 언급하며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2문단의 ‘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입니다.’를 통해 발표 주제인 ‘예산대’와 관련된 단어인 ‘산대’의 의미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의 ‘(청중의 대답을 듣고) 여러분도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전통문화의 또 다른 예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를 통해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말하기 전략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선지 ③에 해당하는 내용인 ‘발표 목적’은 발표의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 지문에서 발표의 목적이 드러난 1문단은 두 줄(세 문장)로 매우 짧다. 따라서 이 1문단에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2. <답> ⑤
<정답률> 93%
<정답 풀이>
4문단을 통해 ㉠은 예산대 위의 인형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는 자료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예산대 인형을 움직이는 원리는 ‘예산대 내부의 톱니바퀴

가 수레바퀴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면서 인형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자료 3>에서 예산대 내부의 톱니바퀴와 수레바퀴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료 3>은 ㉠에 활용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을 통해 ㉠은 ‘전통 인형극을 위한 예산대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자료 1>이 이를 보여주는 자료로 적합하지만, <자료 1>은 ‘예산대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①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은 ‘기이한 돌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담긴 ‘전통 인형극을 위한 예산대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자료 3>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에 <자료 3>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3문단을 통해 ㉠은 예산대에 있는 인형들을 크게 보여 주기 위해 ㉠을 확대한 그림임을 알 수 있다. <자료 2>는 <자료 1>을 확대한 그림이기 때문에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과 <자료 2>는 모두 ‘예산대의 유래’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4문단을 통해 ㉠은 예산대 위의 인형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는 자료임을 추측할 수 있다. 예산대 인형의 형태를 보여 주는 <자료 2>는 ㉠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TIP>

이 문제는 매체 활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기 전 지문의 ‘(자료 제시)’를 읽으면서 각 자료가 어떤 내용을 담은 자료인지 추측하며 읽었다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3. <답> ①

<정답률> 90%

<정답 풀이>

3문단을 통해 예산대에 있는 인형에는 선녀 인형과 낚시꾼 인형, 원숭이 인형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예산대에 있는 인형에는 인물 인형과 동물 인형이 있는 것이다. 답변 내용에 ‘신선의 세계에서 유희를 즐기는 인물과 동물을 나타낸 것입니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질문이 예산대에 있는 여러 인형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 속의 존재들’이라는 답변 내용은 인형들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임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발표 내용에서 전통극 무대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답변 내용에서 신선의 세계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산과 신선의 세계의 관련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답변 내용에서 사람이 직접 예산대 위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발표 내용에서 『봉사도』가 중국 사진단의 일정을 보여 준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만, 답변 내용에서 예산대 외의 다른 그림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TIP>

이 문제는 말하기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선지에 나온 질문과 주어진 답변 내용을 각각 연결하면서 읽어보되, 지문에 나온 내용과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4~5] 화법

[지문 분석]

학생 : 안녕하세요? 한국고 교지 편집부 기자 ○○○입니다.

사서 : 네, 반가워요. 햇살도서관 사서 △△△입니다.

학생 :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전화를 통해 사전에 면담에 대해 이야기함.) 햇살도서관을 저희 학교 교지에 소개(글의 목적)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햇살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참 좋을 거라고 주변 분들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사서 : 우리 도서관을 소개한다니 고마워요.

학생 : 도서관에 다녀온 주민들이 SNS에 ‘햇살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햇살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만이 아님.)라고 쓴 것을 봤어요.(면담 전 햇살도서관에 대한 사전조사를 함.)

사서 : 아마 ‘책편지’ 서비스 때문일 거예요. 이 서비스가 특히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아요.

학생 : 책편지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서 : 혹시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학생의 질문 내용 및 의도를 확인하는 질문)

학생 : 아,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서비스 진행 과정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서 : 네, 책편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도서관에 직접 와서 책을 통해 어떤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지 신청서를 작성(책편지 서비스 신청 방법, 책편지 서비스 진행 과정①)하면 됩니다. 저희 사서들이 그것을 보고,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선정(책편지 서비스 진행 과정②)합니다. 다음 날 선정한 이유를 적은 편지를 책과 함께 신청자에게 드립니다(책편지 서비스 진행 과정③). 일종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죠.

학생 :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이 서비스를 시작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서 : 지역 주민들께 책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책편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

학생 :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고 싶었나요?(사서의 대답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함.)

사서 : 우리는 많은 고민 속에 살지만 그 답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도서관에서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책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책편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학생 :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사서 : 적은 인원으로 일일이 책을 고르고 편지를 쓰는 게 힘든(책편지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겪는 어려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서비스를 즐겁게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책편지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느끼는 보람)

학생 : 인자하신 모습만큼이나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도서관이란 어떤 곳인가요?(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

사서 :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책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학생 : 책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시려는 선생님의 친절한 마음이 한국고 학생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서 : 고맙습니다.

[지문 확인]

- 갈래: 면담
- 주제: 햇살도서관을 교지에 소개하기 위한 면담
- 특징: 책편지 서비스의 취지, 신청 방법, 진행 과정 등이 나타남.

4. <답> ④

<정답률> 96%

<정답 풀이>

[A]에서 학생은 “책편지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 사서는 신청 방법을 묻는 것이냐고 되묻고 있다. 따라서 사서는 학생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B]에서 학생은 ‘지역 주민들께 책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는 사서의 말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고 싶었’는지 묻고 있다. 이는 학생이 사서의 답변을 듣고 더 알고 싶은 점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이 자신의 질문의 의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아,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서비스 진행 과정도 설명해주시겠어요?”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이는 학생이 같은 질문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② [A]에서 사서는 학생의 질문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학생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다.

③ [B]에서 학생은 사서의 질문을 듣고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하고 있다. 사서의 답변이 면담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⑤ [A]에서 학생이 질문의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고 판단하여 다시 질문을 했다고 볼 순 있지만, [B]에서 사서가 학생의 질문 중 일부 내용을 반복하여 자신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

<TIP>

이 문제는 말하기 목적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지문을 읽을 때 학생과 사서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며 읽었다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5. <답> ④

<정답률> 81%

<정답 풀이>

면담에서 사서가 책편지 서비스 신청 방법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이 쓴 글에서는 신청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면담에서 학생은 “인자하신 모습만큼이나 마음이 따뜻하시네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사서에 대한 주관적 인상에 해당하는데 학생이 쓴 글에서도 ‘인자한 인상의 사서 선생님’이라며 사서에 대한 인상을 언급하고 있다.

② 학생이 쓴 글에서 ‘진로 탐색이나 교우 관계에 고민이 있는 한국고 학생들’로 책편지 서비스가 도움이 될 만한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책편지 서비스를 통한 기대 효과를 알리고 있다.

③ 학생의 마지막 질문에 사서는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책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답하고 있다. 학생이 쓴 글의 부제인 “도서관은 책을 경험하는 곳입니다.”를 통해 사서의 답을 부제로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면담에서 학생은 “도서관에 다녀온 주민들이 SNS에 ‘햇살도

서관은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라고 쓴 것을 봤어요.”라고 말하였다. 학생이 쓴 글에서 ‘이 서비스를 경험한 주민들은 햇살도서관이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라고 말한다.’라며 면담에서 언급한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자료 수집과 활용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문제에 주어진 (학생이 쓴)글에 지문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6~7] 작문

[지문 분석]

[작문 과제]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글(일기, 자서전, 회고문 등이 있음.)을 써 보자.

[학생의 글]

(가) 학생 1

옥수수 씨앗을 심으러 학교 텃밭에 가는 날이었다.(‘일상의 체험’이자 글의 소재: 옥수수 씨앗을 학교 텃밭에 심은 경험) 처음 심어 보는 옥수수라 마음이 설렘이 들었다. 그런데 텃밭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잡초를 뽑고 텃밭의 흙을 정리하느라 흠뻑 땀이 흘렀다. 생각보다 일이 많고 힘들었다. 괜히 시작한 것 같아 후회가 되면서 나도 모르게 투덜대며 얼굴을 찡그렸다. 옆에서 나를 지켜보신 선생님께서 “하나의 생명을 심을 때는 심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심는 거란다. 즐거운 마음으로 심어야지.”(학생1에게 깨달음을 준 선생님의 말)라고 하셨다. 생각해 보니 텃밭에 오면서 느꼈던 설렘은 어느새 투덜땀으로 바뀌어 있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었던 것은 아닐까?(성찰하는 글의 특성인 반성적 성격이 드러남.) 텃밭에 올 때의 마음으로 옥수수 씨앗을 심으며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하나의 생명을 심을 때는 심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심는 거란다.’

(나) 학생 2

선배와 학교 텃밭에 옥수수 씨앗을 심고 아침저녁으로 살피며 싹이 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일상의 체험’이자 글의 소재: 옥수수 씨앗을 심고 싹이 나기를 기다린 경험) 열흘쯤 지나자 선배의 옥수수는 싹이 올라오는데, 내 옥수수의 싹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여러 번 텃밭에 갔다. 선배는 때가 되면 싹이 돌아날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 보자(학생2에게 깨달음을 준 선배의 말)고 했다. 선배의 말에 나를 되돌아보았다. 왜 그렇게 조급해했던 것일까? 나는 평소 무엇인가를 여유롭게 기다리지 못하고,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랄 때가 많았다. 이런 태도는 친구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서로 알아 가기 위한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한데,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조급해하며 서운했던 적이 많았다.(성찰하는 글의 특성인 반성적 성격이 드러남.) 가다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성급한 마음을 먹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학생2가 얻은 깨달음) 그렇게 생각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옥수수 싹이 어느새 올라와 있었다.

[지문 확인]

• 갈래: 성찰하는 글

- 주제
 - (가):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지 말자.
 - (나): 기다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성급한 마음을 먹지 말자.
- 특징
 - 일상의 체험(학교 텃밭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함.
 - 글쓴이에게 깨달음을 준 타인의 말이 인용됨.
 - 반성적 성격이 드러남.
 -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나타남.

6. <답> ②

<정답률> 90%

<정답 풀이>

‘학생 2’는 식물이 자라는 모습에서 새로운 의미(조급해하지 말자)를 발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학생 1’은 식물을 심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학생 1’의 글에는 식물이 자라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학생 1’은 선생님의 조언을 통해, ‘학생 2’는 선배의 조언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다.
- ③ (가)의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었던 것은 아닐까?’와 (나)의 ‘왜 그렇게 조급해했던 것일까?’를 통해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학생 1’은 선생님의 조언을 다시 인용하면서, ‘학생 2’는 자신이 원했던 상황인 옥수수 싹이 올라온 모습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⑤ ‘학생 1’은 ‘설렘은 어느새 투덜땀으로 바뀌어 있었다’며 자신의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학생 2’는 조급해하는 자신의 태도를 친구들과의 관계와 연결 지어 내용을 전개하였다.

<TIP>

이 문제는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가)와 (나)를 읽으면서 ‘옥수수’라는 동일한 소재가 나오지만, ‘옥수수’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과 경험으로 인한 깨달음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파악해야 한다.

7. <답> ④

<정답률> 96%

<정답 풀이>

A는 노력에 따라 목표한 결과를 얻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며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도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학생 2’의 글과 자신의 생각의 차이점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A는 기다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학생 2’의 생각에 ‘기다림의 자세만으로 목표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시하며 B의 생각을 묻고 있다.
- ② B는 자신이 수영을 배웠을 때의 경험을 들고 있다. 또한 ‘학생 2’의 생각이 이해된다며 ‘학생 2’의 글에 공감하고 있다.
- ③ A는 ‘학생 2’의 생각처럼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며 ‘학생 2’의 글에 담긴 생각을 인정하면서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고 있다.

- ⑤ B는 ‘학생 1’, ‘학생 2’의 글을 읽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의 생각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다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이유) 좋았다(긍정적)고 말하고 있다.

<TIP>

이 문제는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학생들의 글에 대해 A와 B가 각각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A와 B의 생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8~10] 작문

[지문 분석]

(가) 작문 과제

- 주제 :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
- 글의 목적 :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기**(글의 갈래가 주장하는 글임을 알 수 있음.)
- 예상 독자 : 확증 편향의 개념이 생소한 우리 학교 학생들

(나) 학생의 글

만약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증거를 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상황에 대해 가정함.)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사형 제도에 찬성, 반대하는 대학생들에게 사형 제도의 효과에 관한 상반된 연구 결과를 제공한 후 반응을 살펴보는 **실험(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증거를 봤을 때의 반응을 실험함.)**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역시 그렇지.’라고 반응한 반면,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이유를 들어 그 연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심리적 경향(확증 편향의 개념,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생소한 단어의 개념을 설명함.)**을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확증 편향에 빠질 경우 **비판적 사고를 하기 어려워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다(확증 편향에 빠졌을 때의 문제점①)**. 또한 **확증 편향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은 사회적으로 편향된 통념을 형성하여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확증 편향에 빠졌을 때의 문제점②)**

따라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글의 주제인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 먼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①)** 왜냐하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존 증거들을 탐색하게 되어 판단의 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를 지녀야 하는 이유)**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를 지닌 인물,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한 인물)**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강해질수록 그와 모순되는 증거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기에 학문적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토의와 같은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②)** 이를 통해 **확증 편향에 빠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판단 착오를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토의와 같은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의 효과, 토의와 같은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거쳐야 하는 이유①)** 더 나아가 **구성원 간 상호 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토의와 같은**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의 효과, 토의와 같은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거쳐야 하는 이유②)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의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③)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글이나 말로 표현할 때 그것이 불러일으킬 영향을 예상하여 책임감을 가진다면, 판단의 착오를 줄이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의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를 지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의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를 지녀야 하는 이유)

물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집단이 비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서로 갈등하는 일을 막으려면(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지문 확인]

- 갈래: 주장하는 글
- 주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
- 특징
 -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생소한 개념을 설명함.
 -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

8. <답> ④

<정답률> 89%

<정답 풀이>

확증 편향의 개념이 생소한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의 한 심리학자’의 실험을 확증 편향을 보여 주는 예로 들며, 확증 편향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지만, 확증 편향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는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확증 편향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점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③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는 글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방안의 한계와 이를 보완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를 통해 예상 독자의 관심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에 사회적 쟁점을 두고 우리 학교 학생들 간에 벌어진 논쟁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TIP>

이 문제는 내용 조직 전략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9. <답> ④

<정답률> 86%

<정답 풀이>

(나)에서는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거치면 확증 편향에 빠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판단 착오를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보기>에서 ‘당시 과학계(집단의 의견)’는 확증 편향에 빠져 판단 착오를 발견하여 수정하고 있지 않으며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의 의견이 한쪽(천

동설)으로 치우쳐 있다면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거치더라도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나)에 대한 비판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경향인 확증 편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지 ①도 확증 편향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확증 편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에 대한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보기>가 확증 편향이 비판적 사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내용도 아니다.

②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확증 편향으로 인한 판단의 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나)에 대한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보기>가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확증 편향으로 인한 판단의 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아니다.

③ (나)는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③의 내용도 책임감 있는 자세를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보기>가 책임감 있는 자세에 대한 내용도 아니다.

⑤ 선지의 내용만 본다면 (나)와 달리 확증 편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나)에 대해 비판하는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확증 편향’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제시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는 것이다. 따라서 ⑤의 내용은 (나)에 대한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보기>에서 갈릴레이가 확증 편향을 가졌기 때문에 지동설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TIP>

이 문제는 글쓰기 전략을 묻는 문제이다. 이 문제처럼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는 지문의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보기>를 읽으면서 <보기>의 어떤 내용을 지문의 주장과 연관 지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10. <답> ③

<정답률> 87%

<정답 풀이>

<보기>의 두 번째 문장이 앞 문장과 유사한 내용인 것은 맞지만, 글쓴이는 두 문장의 핵심어를 포함한 한 문장으로 교체하지 않고 두 번째 문장을 삭제하였다.

<오답 풀이>

① 앞 문단과의 연결 관계를 보여 주기 위해 ‘따라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라는 문단 간의 관계를 알려 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

②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존 증거들을 탐색하게 되어 판단의 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를 지녀야’하는 이유를 제시된 방안의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보기>의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은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다. 따라서 문단의 통일성을 위해 글에서 삭제하였다.

⑤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는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찰스 다윈’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사례를 주장에 대한 근거로 추가하였다.

<TIP>

이 문제는 고쳐쓰기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11~15] 문법

11~12번 문법 이론: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의 부사격 조사
 • 중세 국어의 격조사

격조사	형태	실현 방법	용례
주격 조사	ㅣ	‘ㅣ’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부터+ㅣ→부 <u>테</u>
	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사름+이→사 <u>르미</u>
	∅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불 휘+∅→불 휘 (뿌리가)
목적격 조사	을/을	자음 뒤	나라 <u>흐</u> (나라를), 쁘 <u>들</u> (뜻을)
	를/를	모음 뒤	놀 <u>애를</u> (노래를), 天 <u>하를</u> (천하를)
관형격 조사	ㅅ	무정 명사, 높임 명사 뒤	나 <u>랏</u> 말씀(나라의 말씀)
	히	양성 모음 뒤 유정 명사 뒤	ㅁ <u>린</u> 香(말의 향)
	의	음상 모음 뒤 유정 명사 뒤	崔九 <u>의</u> 집(최구의 집)
부사격 조사	애	양성 모음 뒤	바 <u>르래</u> 가느니 (바다에 가니)
	에	음성 모음 뒤	굴 <u>허에</u> (구렁에)

(참고) 비교 부사격 조사의 용례

부사격 조사	비교 부사격 조사	에/애	나랏 말 <u>ㅅ</u> 미 中國 <u>에</u> 달아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이	古聖 <u>이</u> 同符 <u>ㅎ</u> 시니 (고성과 일치하시니)
		도곤	호박 <u>도</u> 곤 더 곱 <u>더</u> 라 (호박보다 더 곱더라)

• 현대 국어의 격조사

격조사(格助詞) : 선행하는 체언으로 하여금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 주는 조사.

갈래	용례	예
주격 조사	-이/-가, -께서, -에서(단체의 무정명사 뒤), -서(사람의 수효를 표시)	• 철수 <u>가</u> 집에 간다. • 우리 학교 <u>에서</u> 우승을 하였다. (‘철수, 학교’에 문장성분의 주어의 자격을 부여함)
보격 조사	-이/-가(불완전자동사 ‘되다, 아니다’ 받드시 동반함)	• 영희는 의사 <u>가</u> 되었다. • 순자는 바보 <u>가</u> 아니다. (‘의사, 바보’에 문장성분의 보어의 자격을 부여함)
서술격	-(이)다	• 이것은 책상 <u>이다</u> .

조사		(‘책상’에 문장성분의 서술어의 자격을 부여함)
목적격 조사	-을/-를, -ㄴ(때로는 방향, 처소, 낙착점, 주격에 쓰임)	• 나는 밥을 열심히 먹 <u>었다</u> . • 순희는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 <u>았다</u> . (‘밥, 새’에 문장성분의 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함)
관형격 조사	-의	• 철수는 순희 <u>의</u> 손을 잡 <u>았다</u> . (‘순희’에 문장성분의 관형어의 자격을 부여함)
호격 조사	-아/-야, -(이)시여, -(이)여	• 철수 <u>야</u> , 집에 가 <u>자</u> . • 하늘 <u>이시여</u> , 우리를 버리지 마 <u>소서</u> . (‘철수, 하늘’에 문장성분의 독립어의 자격을 부여함)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에게, -한테서, -(으)로, -하고, -와	• 순희는 학교 <u>에</u> 간 <u>다</u> . • 영희는 동생 <u>에게</u> 책을 주 <u>었</u> 다. (‘학교, 동생’에 문장성분의 부사어의 자격을 부여함)

(참고) 부사격 조사의 의미상의 갈래

갈래	용례	예
처소 부사격 조사	① 장소(소재지) ; 에, 에서 ② 시간(때) ; 에 ③ 상대(행위의 귀착점) ; 에(게), 한테, 께, 더러, 보고 ④ 출발점 ; 에서, 에게서, 한테서, 로부터 ⑤ 지향점(방향) ; (으)로, 에게로, 한테로, 에	• 오늘 우리는 학교 <u>에서</u> 만나 <u>자</u> . • 열 시 <u>에</u> 출발하 <u>자</u> . • 상민이는 순희 <u>보고</u> 비난을 하 <u>었다</u> . • 시위대는 울산 <u>에서</u> 출발 <u>했</u> 다. • 영수는 어머니 <u>에게로</u> 달려 <u>갔</u> 다.
도구 부사격 조사	(으)로(써)	• 영희는 연필 <u>로써</u> 그림을 그 <u>렸</u> 다.
자격 부사격 조사	(으)로(서)	• 영수는 반장 <u>으로</u> 선출 <u>되</u> 었다.
원인 부사격 조사	에,(으)로	• 나무가 바람 <u>에</u> 쓰러 <u>졌</u> 다. • 도시가 태풍 <u>으로</u> 피해를 입 <u>었</u> 다.
비교 부사격 조사	과/와, 처럼, 만큼, 보다, 하고	• 나는 너 <u>와</u> 다르 <u>다</u> . • 나도 너 <u>처럼</u> 멋진 사람이 되고 싶 <u>다</u> .
동반, 공동 (함께 함) 부사격 조사	과/와, 하고	• 순희는 영수 <u>와</u> 함께 결혼 <u>했</u> 다. • 덕철이는 만수 <u>하고</u> 학교에 간 <u>다</u> .
변성(바뀜) 부사격 조사	로	• 얼음이 물로 변 <u>했</u> 다.

인용 부사격 조사	라고, 고	- 수철이는 “우리 모두 함께 가자.”라고 소리쳤다. (직접인용) - 만수는 영화가 어제 사라졌다고 말했다.(간접인용)
-----------	-------	--

11. <답> ①
<정답률> 71%
<정답 풀이>
2문단의 “에’와 ‘에서’는 모두 ‘장소’를 의미하는 말에 붙지만’을 통해 현대 국어의 ‘에’ 앞의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문단의 ‘이는 ‘애/에/예, 이 /의’가 현대 국어의 ‘에’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 ‘에’ 앞의 명사는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1)의 예문을 통해 현대 국어에서 ‘에’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에서’ 앞에 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의 ‘그에 따라 중세 국어에서 ‘에서/에서/에서, 이서/의서’가 주격 조사로도 쓰인 경우가 있다.’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 ‘애/에/예’와 ‘이/의’ 모두 주격 조사로 쓰인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의 ‘중세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애/에/예, 이/의’와 ‘이시다(현대 국어 ‘있다’)의 활용형인 ‘이서’가 결합된 말들이 줄어서 ‘에서/에서/에서, 이서/의서’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본래 ‘이시다’를 포함하므로, 그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를 통해 중세 국어 ‘에서’는 ‘이서’에 ‘에’가 결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서’의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하므로 ‘서’는 지점이 아닌 공간의 의미를 나타낸다.
⑤ 5문단의 ‘중세 국어의 ‘에서’, 현대 국어의 ‘에서’와 달리 중세 국어의 ‘씩서’, 현대 국어의 ‘께서’는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난다.’를 통해 중세 국어 ‘에서’는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12. <답> ①
<정답률> 48%
<정답 풀이>
㉠에서 주어는 ‘공룡 화석이’이고 ‘그 지역에서’는 부사어이다. 따라서 ‘에서’는 주격 조사가 아닌 부사격 조사이다.

<오답 풀이>
② ㉠에서 주어는 ‘정부에서’이고 집단을 의미하는 ‘정부’에 주격 조사 ‘에서’가 결합한 것이다.
③ ㉡에서 주어는 ‘할머니께서’이고 높임의 유정 명사 ‘할머니’에 주격 조사 ‘께서’가 결합한 것이다.
④ ㉢에서 주어는 ‘그위에서’이고 ‘그위’에 주격 조사 ‘에서’가 결합한 것이다.
⑤ ㉣에서 주어는 ‘十二部經이’이고 ‘十二部經’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에서 부사어는 ‘부터씩서’이고 높임의 유정 명사인 ‘부터’에 부사격 조사 ‘씩서’가 결합한 것이다.

<TIP>
이 문제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정답률이 낮게 나왔지만 주어와 부사어를 구분할 수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13번 문법 이론: 음운 변동

① 교체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국어에서는 음절의 끝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의 자음만 발음된다. 나머지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가운데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 어말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에서는, 음절의 끝소리가 위의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발음된다.
예) 부엌[부억], 한낮[한난], 잎[입], 깎다[깍따], 낮잠[날잠]
-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음절의 끝소리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된다.
예) 낮이[나지]

2) 비음화: 끝소리가 파열음인 음절 뒤에 첫소리가 비음인 음절이 연결될 때, 앞 음절의 파열음이 비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 ‘ㄱ’은 비음 앞에서 [ㅇ]으로 발음된다.
예) 국물[궁물], 낚는다[낭는다], 부엌 문[부영문]
- ‘ㄷ’은 비음 앞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예) 단는[단는], 걸모양[건모양]
- ‘ㅂ’은 비음 앞에서 [ㅁ]으로 발음된다.
예) 밥물[밤물], 앞니[암니]

3) 유음화: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발음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 음절의 끝소리 ‘ㄹ’ 뒤에 음절의 첫소리 ‘ㄴ’이 올 때 ‘ㄴ’이 [ㄹ]로 발음된다.
예) 칼날[갈랄], 물난리[물랄리], 훑는[훑는 → 흘른]
- 음절의 끝소리 ‘ㄴ’ 뒤에 음절의 첫소리 ‘ㄹ’이 오면 ‘ㄴ’이 [ㄹ]로 발음된다.
예) 신라[실라], 논리[놀리]

4)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 형태소 끝소리의 ‘ㄷ’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면 [ㅈ]으로 발음된다.
예) 해돋이[해도지], 굳이[구지]
- 형태소 끝소리의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면 [ㅊ]으로 발음된다.
예) 같이[가치], 밭이[바치]

5) 된소리되기: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 ‘ㄱ, ㄷ, ㅂ, ㅅ, ㅈ’은 ‘ㄱ, ㄷ, ㅂ’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예) 입고[입꼬], 묻다[묻따], 국밥[국빳], 박사[박쌌], 값지다[갑찌다]

- 용언이 활용할 때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ㅈ’은 어간의 끝소리 ‘ㄴ, ㄹ’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예) 신고[싣꼬], 넘다[넙따]

- 두 어절 이상이 연결되는 경우에도 일어난다. 그래서 관형사형 ‘-(으)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때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찌게]

② 축약

1) 개념: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음운의 축약이라고 한다.

2) 종류

- 자음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자음 축약이라 한다.

예) 좋고 → [조코], 많다 → [만타], 업히다 → [어피다], 젓히다 → [저치다]

- 모음 ‘ㅣ’나 ‘ㅏ/ㅗ’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이 되는 것도 축약이라 한다. 이때 모음 ‘ㅣ’나 ‘ㅏ/ㅗ’는 반모음으로 바뀐다.

예) 가리- + -어 → 가려, 두- + -었다 → 뒀다

③ 탈락

1) 개념: 두 개의 자음이 이어지거나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둘 중 하나가 탈락되는 현상을 음운의 탈락이라고 한다.

2) 자음 탈락

- 자음 ‘ㄷ’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몇몇 어미와 결합할 때 ‘ㄷ’이 탈락된다.

예) 울- + -는 → 우는

- 자음 ‘ㅎ’으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할 때 ‘ㅎ’이 탈락된다.

예) 좋아[조아], 쌓이다[싸이다]

- 음절의 끝소리에 자음 두 개가 오면 하나는 탈락되고 나머지 하나만 발음이 된다.

예) 닭[닥], 삶[삼], 밟고[밥꼬], 훑다[할따]

3) 모음 탈락

- 모음 ‘ㅡ’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ㅗ’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ㅡ’가 탈락된다.

예) 쓰- + -어라 → 써라

- 모음 ‘ㅏ/ㅗ’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ㅗ’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ㅏ/ㅗ’가 탈락된다.

예) 가- + -아서 → 가서

④ 첨가

1) 개념: 두 형태소가 결합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첨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종류

-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사잇소리가 첨가되어 뒤 형태소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예) 밤 + 길 → 밤길[밤깁], 초 + 불 → 촛불[초뽳/촌뽳]

-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ㄴ, ㄹ’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사잇소리가

첨가되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예) 코 + 날 → 콧날[콘날→곤날], 이 + 몸 → 잇몸[인몸→인몸]

-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ㄴ’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예) 맨- + 입 → 맨입[맨닙], 한- + 여름 → 한여름[한녀름]

13. <답> ②

<정답률> 71%

<정답 풀이>

‘안팎을’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하여 [안과꿀]로 발음해야 한다. [안과글]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후 연음하였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찰흙이’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겹받침의 뒤 자음만 다음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여 [찰홀기]로 발음해야 한다. [찰호기]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한 후 연음하였기 때문이다.

③ ‘넋이’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겹받침의 뒤 자음만 다음 음절 초성으로 이동한 후 된소리되기를 적용하여 [넉씨]로 발음해야 한다. [너지]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한 후 연음하였기 때문이다.

④ ‘끝을’은 연음하여 [끄틀]로 발음해야 한다. [끄출]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구개음화를 적용한 후 연음하였기 때문이다.

⑤ ‘숲에’는 연음하여 [수페]로 발음해야 한다. [수베]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후 연음하였기 때문이다.

<TIP>

이 문제는 음운 변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부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발음이 각각 어떤 음운 변동을 거쳤는지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14번 문법 이론: 단어의 구조(구성 요소)

1) 단어의 형성

파생법(派生法)과 합성법(合成法)에 의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2) 구성 방식에 따른 단어의 갈래

갈래		형태
단일어(單一語)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		실질형태소(1개)
복합어(複合語)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	파생어	형식형태소+실질형태소(접사+어근) 실질형태소+형식형태소(어근+접사)
	합성어	실질형태소+실질형태소(어근+어근)

3) 어근과 접사

어근(語根)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
접사(接詞)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거나,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는 형식 형태소.

14. <답> ②
<정답률> 35%
<정답 풀이>
‘떠넘기면’의 어간은 ‘떠넘기-’이다. ‘떠넘기-’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뜨-’와 어근 ‘넘기-’로 분석되기 때문에 ㉠을 충족한다. 또한 ‘떠넘기면’의 어간 ‘떠넘기-’를 분석하면 ‘뜨-’, ‘-어’, ‘넘-’, ‘-기’ 3개 이상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도 충족한다.
<오답 풀이>
① ‘내리쳤다’의 어간은 ‘내리치-’이다. ‘내리치-’는 어근 ‘내리-’와 어근 ‘치-’로 분석되기 때문에 ㉠을 충족한다. 하지만 ‘내리치’를 분석하면 ‘내리-’, ‘-치-’ 2개이기 때문에 ㉡을 충족하지 못한다.
③ ‘헛돌았다’의 어간은 ‘헛돌-’이다. ‘헛돌-’은 접사 ‘헛-’과 어근 ‘돌-’로 분석되기 때문에 ㉠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헛돌-’을 분석하면 ‘헛-’, ‘돌-’ 2개이기 때문에 ㉡도 충족하지 못한다.
④ ‘오간다’의 어간은 ‘오가-’이다. ‘오가-’는 어근 ‘오-’와 어근 ‘가-’로 분석되기 때문에 ㉠을 충족한다. 하지만 ‘오가-’를 분석하면 ‘오-’, ‘가-’ 2개이기 때문에 ㉡을 충족하지 못한다.
⑤ ‘짓밟혀도’의 어간은 ‘짓밟히-’이다. ‘짓밟히-’는 어근 ‘짓밟-’과 접사 ‘-히-’로 분석되기 때문에 ㉠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짓밟히-’는 ‘짓-’, ‘밟-’, ‘-히-’ 3개로 분석되기 때문에 ㉡을 충족한다.
<TIP>
이 문제는 단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어근과 어간을 헷갈리지 않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단어에서 어근과 어간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15번 문법 이론: 겹문장

• 겹문장

(1) 겹문장의 정의

한 개의 홀문장이 한 성분으로 안겨 들어가서 이루어지거나, 홀문장이 여러 개가 이어져서 여러 겹으로 된 문장.

(2) 겹문장의 갈래

갈래	의미	예
안은문장	문장 속에 다른 홀문장이 성분으로 들어 있는 문장	우리는 이제서야 <u>그가 확실히 우리를 사랑했음을 깨달았다.</u>
이어진문장	홀문장이 서로 이어지거나 여러 겹으로 된 문장	<u>그는 이 고장에서 태어났고</u> , 평생 동안 여기서 <u>살았다.</u>

• 안은문장

(1) 안김과 안음

안김문장	한 문장이 절의 형태로 전체 문장 속에 한 성분으로 안김
안은문장	속에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겹의 전체 문장

문장	
----	--

(2) 명사절로 안김

① 명사절의 구실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서술어 등의 구실을 함.
--

② 명사절의 성립

성립	예
명사형 어미 ‘-(으)ㄴ’이 붙은 명사절	그가 <u>돈이 많음</u> 이 알려졌다.(주어절) 우리는 그가 성실한 학생임을 알고 있다.(목적절)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명사절	<u>어린 애가 그런 일을 하기</u> 는 쉽지 않다.(주어절) 네가 꼭 <u>합격하기</u> 를 바란다.(목적절)
관형사형 어미 ‘-는/-니’ + ‘것’으로 된 명사절(‘것’ 명사절)	<u>지구가 둥글다</u> 는 것이 오래 전에 증명되었다.(주어절) 나는 <u>그가 성실한 것</u> 을 잘 알고 있다.(목적절)
‘-느냐/-(으)냐, -는가/-(으)니까, -는지/-(으)니까’ 등의 종결 어미로 끝난 문장은 그대로 명사절로 쓰일 수 있다.	기온은 식물이 <u>자라는 것</u> 과 관계 있다.(부사절) 이제부터 <u>네가 어떻게 하느냐(하는가, 할지)</u> 가 문제다.(주어절)

(3) 서술절로 안김

① 서술절의 구실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함.

② 서술절의 성립

성립	예
서술절의 주어는 전체 문장의 주어의 일부분이거나 그 소유물인 경우가 많다.	이 책이 <u>글씨가 너무 작다.</u> 코끼리는 <u>코가 길다.</u>

(4) 관형절로 안김

① 관형절의 구실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함.

② 관형절의 성립

갈래	성립	예
긴 관형절	종결형으로 끝난 문장 + (-고 하)는	나는 <u>그가 우리를 위해 애썼다(고 하)</u> 는 말을 들었다.
짧은 관형절	용언의 어간 + 관형사	<u>그가 우리를 도와 준</u>

	형 어미(－는, －ㄴ, － 르,－던)	일을 잊지 맙시다.
--	-------------------------	------------

③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

갈래	의미	예
동격 관형절	한 문장의 성분을 갖춘 관형절로 긴 관형절과 짧은 관 형절의 일부로서 뒤에 오는 체언과 동일한 의미를 가 지므로 생략이 불 가능하다.	내가 <u>깜작 놀랄</u> 일이 생겼 다. 나는 (내가) 그에게 책을 <u>빌려준</u> 기억이 없다.
관계 관형절	성분 중의 하나가 생략되는 관형절로 서, 꾸밈을 받는 체 언이 생략된 성분 과 같다. 짧은 관형 절로 이루어진다.	그는 <u>이마에 흐르는 땀을</u> 씻었다.(주어 생략 : 땀) 이것이 <u>충무공이 쓴</u> 난중 일기다.(목적어 생략 : 난 중 일기) 저곳이 <u>내가 책을 산</u> 서점 이다.(부사어 생략 : 서점)

④ 꾸밈을 받는 명사와 관형절

성립	예
긴 관형절 + '소문, 인상, 제안, 질문, 낭설, 보도, 정보,...'	나는 <u>그가 사업에 실패했</u> <u>다는</u> 소문을 들었다.
짧은 관형절 + '기억, 사건, 경험, 용기, 줄, 수,...'	너는 전에 <u>그를 만난</u> 기억 이 나니?
'사실, 목적, 약점, 결심, 욕심,...' 등의 명사는 둘 다 가능하다.	너는 <u>그가 죽은(죽었다는)</u> 사실을 아니?

(5) 부사절로 안김

① 부사절의 구실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서술 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

② 부사절의 성립

성립	예
용언에서 파생된 부사 '없이, 같이, 달리' 등이 서술어 노릇을 하여 부사 절을 형성	'없이' 비가 <u>소리도 없이</u> 내린다. '같이' <u>예상했던 것과 같이</u> 우리 편이 이 겼다. '달리' 그 아이가 <u>형과는 달리</u> 사교에 능 하다.

(참고) 부사절로 볼 수 없는 것

'－듯이, －게, －도록' 등이 붙어 서 이루어진 절은 <u>종속적으로 이 어진 문장</u> 으로 취급한다.	차가 <u>지나가게</u> , 이 물건을 치 워요. 눈물이 <u>비오듯이</u> 흐른다.('흐 른다' 생략) 바람이 <u>통하도록</u> 창을 열었 다.('창에' 생략)
---	---

	저 사과가 <u>맛이 있게</u> 익었다. ('사과가' 생략)
--	--

(6) 인용절로 안김

① 인용절의 구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김.(통사상으로 서술어를 수식하므로 부사어로 본다.)
--

② 인용절의 성립

갈래	의미	예
직접 인용절	직접 인용 조사 '라고, 하고' 를 붙여서 만드는데, '하고'가 쓰이면 말소리나 억양까 지 흉내내는 것을 나타낸다.	윤희가 “난 <u>저렇게 큰 별은</u> <u>처음 봤어!</u> ”라고 말했다. 영신은 “ <u>여러 학생들, 조용</u> <u>히 들어요!</u> ”하고 말했다.
간접 인용절	간접 인용 조사 '고'를 붙여 만드 는데, 본디 문장의 종결 어미가 변한 다.	평 서 문, 감 탄 문 누구나 <u>인간은 존엄하</u> <u>다고</u> 믿는다. 선생님은 <u>철수가 모범</u> <u>생이라고</u> 하셨다. 의 문 문 비가 <u>오느냐고</u> 물었다. 날씨가 <u>맑으냐고</u> 물었 다. 어떤 책이 <u>좋은 책이</u> <u>냐고</u> 물었다. 청 유 문 명 령 문 철수는 <u>이웃 돕기 성</u> <u>금을 걷자고</u> 제의했다. 선생님은 <u>청소를 깨끗</u> <u>이 하라고</u> 강조하셨다.

(7) 문장의 안김과 성분의 생략

문장의 안김과 성분의 생략	예
한 문장이 절의 형태로 큰 문 장 속에 안김 때, 안김 문장의 성분이 그것을 안은 문장의 한 성분과 동일하면 그 성분은 생 략될 수 있다.	나는 (내가) 집에 <u>가기가</u> 싫 다. 선생님은 철수를 (철수가) 부 <u>지런하다고</u> 칭찬하셨다.

15. <답> ①

<정답률> 77%

<정답 풀이>

‘동생은 추운 날씨에도 얼음을 먹었다.’는 ‘날씨가 춥다’가 관형절
로 안겨 ‘날씨’를 꾸며주므로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 아닌 관형
절을 안은 문장(㉡)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형은 얼음을 먹는 동생에게 불평을 했다’는 ‘동생은 얼음을 먹

었다'가 관형절로 안겨 '동생'을 꾸며주므로 관형절을 안은 문장 ㉔에 해당한다.

③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이 얼음을 먹었다.'는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가 부사절로 안겨 '먹었다'를 꾸며주므로 부사절을 안은 문장 ㉕이다.

④ '형은 동생에게 날씨가 춥다고 불평을 했다.'는 '날씨가 춥다'가 간접 인용절로 안겨 있으므로 인용절을 안은 문장 ㉖에 해당한다.

⑤ '형은 물을 마셨지만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는 '형은 물을 마셨다.'와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가 연결 어미 '-지만'을 통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㉗이다.

<TIP>

이 문제는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선지에 주어진 문장을 두 문장으로 적절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16~20] 문학-고전 시가

[지문 분석] (가)

홍진(紅塵)(속세)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하고
넋사를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표면적으로는 겸손의 표현이지만
속으로는 은근한 자부심을 나타냄)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산림(자연)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 볼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공간①)을 벽계수(碧溪水) 얹픽 두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자연 속에 살아가는 사람, 주체적인 태도) 되어서라

서사: 은일지사의 기상, 자연에 묻혀 풍류를 즐김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프르도다(아름다운 봄 경치에 대한 묘사, 대구법, 대조법, 영탄법)
칼로 몰아 내가 붓으로 그려 내가(봄 경치에 대한 감탄, 대구법, 영탄법)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마다 현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감정이입)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 마다 교태로다

본사1: 봄의 아름다운 경치, 봄의 흥취

물아일체(物我一體)(화자의 정서, 물심일여, 주객일체, 설의법)어
니 흥이이 다들소나
시비에 거러 보고 정자(공간②)애 안자 보니
소요음영*하야 산일(山日)이 적적흔디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화자의 정서: 흥겨움→적적함)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청유형 어미, 자연을 지향하는 의식이 산수의 여러 곳으로 확장됨)
답청(踏青)으란 오늘 하고 욱기(浴沂)란 내일 흥새
아춤에 채산(採山)하고 나조히 조수(釣水)흥새(대구법)

본사2: 봄의 흥취와 산수 구경 권유, 상춘취락(봄을 완상하며 즐거움에 취함)

곳 괴여 녀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뵈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풍류를 즐기는 태도)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공감각적 심상-후각의 시각화, 자연에의 몰입)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 아히 드려 주가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그(공간③)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셔요느니 도화(桃花) | 로다
본사3: 냇가에서의 취락, 자연에서 느끼는 물아일체

무릉(무릉도원, 이상향)이 갓잡도다 저 밭이 권 거인고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峯頭)(공간④)에 급피 올라 구름 소리 안자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펴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샤
본사4: 봉두에서 조망한 봄의 정경

공명(功名)도 날 쇠우고 부귀(富貴)도 날 쇠우니(초연한 심경, 화자 자신이 공명과 부귀를 꺼리는 것을 반대로 표현, 주객전도)
청풍명월(淸風明月)(자연) 외(外)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단표누항(簞瓢陋巷)(선비의 청빈한 생활)에 훑튼 혜음(헛된 생각, 공명, 부귀) 아니 흥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흔들 엇지흥리(설의법, 시조의 종장과 음수율이 같음(3·5·4·3), 정격가사)
결사: 안빈낙도에 대한 지향
- 정극인, 「상춘곡」 -

*울울리: 뽕뽕하게 우거진 속.
*소요음영: 자유로이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조림.

■ 핵심정리

- 글의 종류: 가사(정격가사), 서정가사, 양반가사
- 성격: 주정적, 서정적
- 표현상의 특징
 - 1) 설의, 대구, 직유, 의인 등 여러 가지 수사법 사용
 - 2) 고사의 인용이 많음
 - 3) 표기법은 창작 당대(15세기)의 그것이 아니고, 후손에 의해 <불우헌집>이 간행된 18세기의 음운과 어법에 따르고 있다.
- 가치
 - 1) 가사문학의 효시로 평가(조선 시대 사대부 가사의 첫 작품)
 - 2) 호남(湖南)의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출발
-산림처사로서의 생활을 다루는 은일 가사의 첫 작품으로 사람과 문학의 계기를 마련한 작품
- 주제: 봄의 완상(玩賞:즐거서 구경함)과 안빈낙도
- 출전: 불우헌집(정조 10, 1786)
- 구성
 - 제 1단락: 서사, 풍류 생활을 즐기는 은일 지사의 기상
 - 제 2단락: 봄 경치와 이에 몰입
 - 제 3단락: 봄 경치를 즐기는 賞春醉樂

제 4단락: 결사, 안빈낙도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정극인이 치사 후 태인에 돌아와 자연에 묻혀 살 때 지은 것으로, 속세를 떠나 자연에 몰입하여 봄을 완상하고 인생을 즐기는 지극히 낙천적인 노래이다. 내용은 서사/본사 (춘경.상춘)/결사 4분단으로 구성되어는데, 내용 전개에 있어 풍월주인, 가려춘경(佳麗春景), 소요음영, 산수구경, 음주자적,登高부감(登高俯瞰), 수분행락과 같은 장면 배합이 잘 되어 한결 상춘의 흥취를 고양시켜 준다. 조사법이 자연스럽고 표현 기교 또한 어려해서 양반 가사 중 일품으로 꼽는다. 이 작품의 표현은 대구법, 의인법, 설의법, 직유법 등 다양한 수법을 보이고 고사의 인용이 많고 정격가사의 특징을 지닌다.

[지문 분석] (나)

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고산 구곡의 경치, 학문수양의 경지, 중의법)을 사름이 모로더니
주모복거(誅茅卜居) 흥니(풀을 베고 살 곳을 정하니) 벗님네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주자가 정자를 짓고 살았던 곳)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흥리라(주자를 배우리라, 시를 지은 의도)
<1수> 고산구곡가를 짓게 된 이유

일곡은 어디미고 관암(갯처럼 생긴 바위 봉우리)에 히 비췌다(아침)
평무(平蕪)(잡초가 무성한 들판)에 넌(안개) 거드니 원산(遠山)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을 노코 벗 오는 양 보노라
<2수> 관암의 아름다운 경치

이곡은 어디미고 화암(꽃바위)에 춘만(春晚) 커다(늦봄)
벽파*에 곳을 썩워 야외(들판 밖, 속세)로 보너노라
사름이 승지(勝地)(명승지)를 모로니 알게 혼들 엇더리
<3수> 화암의 늦봄 경치

삼곡(三曲)은 어디미고 취병(翠屏)(푸른 빛 병풍처럼 나무와 풀로 덮인 절벽)에 넓 퍼졌다.
녹수(綠樹)(푸른 나무)에 산조(山鳥)(산새)는 하상기음(下上其音)(소리를 낮추었다가 높였다 함)하는 적의
반송(盤松)(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이 수청풍(受淸風) 흥이(바람에 흔들리니) 너름 경(景)이 업세라(여름이 아니다= 시원하다)
<4수> 취병의 시원한 여름 경치

사곡(四曲)은 아드미고 송애(松崖)(소나무가 있는 물가의 낭떠러지)에 히넘거다.
담심암영(潭心巖影)(물에 비친 바위 그림자)은 온갖 빗치
즐것세라(영탄법)
임천(林泉)(수풀 속의 샘)이 깊도록(깊을수록) 쵸호니 흥(興)을 계워 흥노라(이길 수 없다)
<5수> 송애와 연못의 황혼녘 경치

오곡은 어디미고 은병(隱屏)(눈에 쉽게 띄지 않는 절벽)이 보기 도타

수변(水邊) 정사(물가에 세워진 정사)는 소쇄홈*도 7이 업다
이 중에 강학(講學)(학문 연구)도 흥려니와 영월음풍흥리라(달과 바람과 더불어 시를 읊으리라)
<6수> 수변 정사에서의 강학과 영월 음풍의 즐거움

육곡(六曲)은 어드미고 조협(釣峽)(낚시질하기에 좋은 골짜기)에 물이 넘다.
나와 고기야 낚야 더욱 즐기는고.
황혼(黃昏)에 낙대를 메고 대월귀(帶月歸)(달과 함께 돌아옴)를 흥노라.
<7수> 조협의 낚시질과 대월귀

칠곡은 어디미고 풍암(단풍으로 둘러싸인 바위)에 추색(秋色) 도타(가을)
청상(淸霜)(맑은 서리) 얹게 치니 절벽이 금수(錦繡)(수놓은 비단) | 로다
한암(寒巖)(차가운 바위)에 혼즈서 안자 집을 잇고 잇노라
<8수> 단풍으로 덮인 풍암에서의 흥취

팔곡(八曲)은 어드미고 금탄(琴灘)(악기를 연주하며 노는 시냇가)에 들이 뵈다.
옥진금휘(玉軫金徽)(아주 좋은 거문고)로 수삼곡(數三曲)을 노는 말이,
고조(古調)(옛 곡조)를 알이 업스니 혼즈 즐여(즐거) 흥노라.
<9수> 금탄의 거문고 연주

구곡은 어디미고 문산에 세모(歲暮) 커다(한 해가 저문다)
기암괴석(문산의 아름다운 경치)이 눈 속에 무쳐세라
유인(遊人)(찾아 오는 사람)은 오지 아니하고 불 것 업다 흥더라(세속 사람의 경박함)
<10수> 문산의 아름다움과 세속의 경박함 (학문하지 않은 세태 풍자)
- 이이, 「고산구곡가」 -

*녹준: 술잔 또는 술동이.

*벽파: 푸른 물결.

*소쇄홈: 기운이 맑고 깨끗함.

■ 현대어 풀이

[1] 고산 아홉 굽이의 경관을 사람들이 모르더니 / 띠풀을 베고 집터를 마련하여 살아가니 벗님들이 모두 오신다. / 아! 무이산(주희의 <무이구곡담>의 배경이 되는 산)을 상상하면서 주자의 학문을 배우리라.

[2] 일곡은 어디인가? 바위 머리 위에 해가 비치는구나 / 잡초가 우거진 들판에 안개가 걸히니 원근의 풍경이 그림이로다. / 소나무 숲 사이로 술통을 놓고 벗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노라.

[3] 이곡은 어디인가? 화암(꽃바위)에 봄이 저물었도다. / 푸른 물결 위에 꽃을 띄워 들판으로 보내노라. / 사람들이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모르니 알게 하면 어떻겠는가?

[4] 삼곡은 어디인가? 푸른 병풍인 듯 펼쳐져 있는 절벽에 나뭇잎들이 우거져 있다. / 푸른 물 위로 산새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며

노래를 부를 때에, / 키가 작고 가로로 퍼진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으니 여름 풍경이 따로 없구나.
[5] 네 번째 계곡은 어디인가? 소나무가 선 절벽 너머로 해가 지는구나. / 물 위에 비친 바위 그림자는 온갖 빛으로 잠기었도다. / 숲속의 샘이 깊을수록 좋으니 흥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6] 오곡은 어디인가?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절벽이 보기가 좋구나. / 물가에 지어 놓은 정사가 맑고 깨끗한 것이 그지없다. / 이러한 배경에서 학문을 연구하려니와 시를 읊으며 풍류도 즐기리라.
[7] 육곡은 어디인가? 낚시질하기에 좋은 골짜기에 물이 넓게 많이 고여 있다. / 나와 물고기 중 누가 더욱 즐기고 있는가? / 황혼녘에 낚싯대를 메고 달빛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오노라.
[8] 칠곡은 어디인가? 단풍이 물든 바위에 가을 빛이 깨끗하구나. / 맑은 서리가 얇게 드리우니 절벽(단풍에 덮인 바위)이 마치 비단처럼 아름답구나. / 시원한 바위에 혼자 앉아서 집에 돌아갈 생각마저 잊었노라.
[9] 팔곡은 어디인가? 거문고를 연주하는 듯 물소리가 흥겹게 들리는 여울목에 달이 밝다. / 훌륭한 거문고로 몇 곡을 연주하며 노니 / 운치 있는 옛 가락을 알 사람이 없으니 혼자서 즐거워 하노라.
[10] 구곡은 어디인가? 기암괴석이 뒤섞여 아롱지게 아름다운 곳에 한해가 저물었도다. /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 보이지 않을까 걱정되는구나. / 유인(즐기며 떠도는 사람)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 핵심 정리

- 성격 : 연시조(10수), 평시조. 교훈적이고 도학적이고 유교적인 시조
- 주제 : 강학(講學)의 즐거움과 고산의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
- [1] : 고산구곡가를 짓게 된 동기
- [2] : 관암(갯바위)에서의 아침 풍경
- [3] : 화암에서의 늦봄 아침의 절경
- [4] : 취병의 여름 풍경에 대한 감탄
- [5] : 송애에서의 황혼녘의 절경
- [6] : 맑은 수변정사에서의 영월음풍
- [7] : 조협에서의 풍류
- [8] : 풍암의 가을 경치에 대한 감탄
- [9] : 금탄에서의 아름다운 물소리
- [10] : 문산의 눈덮인 경치
- 연대 : 선조 10년(1577년), 지은이 42세 때
- 표현

- ① 고산의 아홉 구비 골짜기(구곡)에 맞게 이홉 수의 시조를 배치하고 맨 처음에 이 시조를 지은 동기를 제시하고 있어 모두 열 개의 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임.
- ② 각 수에 제재 역할을 하는 장소와 자연 경치를 제시하여 실제 지형과 맞추고 있으며, 묘사된 자연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음.
- ③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 경치에 대한 예찬과 더불어 학문 수양의 즐거움도 나타내고 있음.

16. <답> ⑤
<정답률> 87%
<정답 풀이>

(가)는 봄의 완상과 안빈낙도를 노래한 작품으로, ‘도화행화’, ‘녹양방초’ 등의 자연물을 의미하는 시어를 통해 시간적(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자연에 대한 예찬과 학문을 깨우치는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으로 각 연마다 풍경이 담겨 있다. (나)의 ‘화암에 춘만커다’, ‘벽파에 곳을 찍워’를 통해 시간적(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풍암에 추색’, ‘청상’, ‘금수’ 등을 통해 가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눈’을 통해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 모두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가)와 (나) 모두 음성 상징어가 사용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가)와 (나) 모두 점층적인 표현으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가)와 (나)는 모두 대상(자연물이나 공간)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에서 ‘주자’라는 역사적 인물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자’를 호명하며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인물들을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다.

<TIP>

이 문제는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이다. 각 작품의 주제 및 내용을 알았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지만, 몰랐더라도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17. <답> ④
<정답률> 79%
<정답 풀이>

㉠은 ‘사람들이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모르니 알게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에서는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은 ‘속세에 사는 사람들아 내 생애가 어떠한가’라는 뜻으로 자신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연 친화적인 삶이 어떤지 묻는 것이다. 따라서 ㉠에서 청자와 화자가 서로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질문하기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은 이웃들에게 산수 구경을 권유하는 내용이다. 이웃들(청자)을 불러들여 함께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동질성 회복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③ ㉢은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라’라는 뜻으로 상대의 부락을 수용하며 자신과 뜻을 같이할 것을 청자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⑤ ㉤은 ‘유인(즐기며 떠도는 사람)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라는 뜻으로 직접 와서 살펴보지도 않았으면서 볼 것이 없다고 말하는 세속의 경박함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의 말을 청자에게 전하며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TIP>

이 문제는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보기>가 제시되어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시어 및 시구를 해석할 수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18. <답> ②

<정답률> 78%

<정답 풀이>

화자가 붓으로 그린 듯한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수풀에 우는 새)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화자가 새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 마다 교태로다’는 수풀에 우는 새가 봄기운을 끝내 이기지 못해 소리마다 교태를 부린다는 뜻으로 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오답 풀이>

① ‘벚사름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는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은근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또한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서라’에서도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난다.

③ ‘답청으란 오늘 흐고 옥기란 내일 흐새/아침에 채산흐고 나조히 조수흐새’를 통해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④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를 통해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연에 몰입한 화자의 모습, 자연과 하나 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⑤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써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를 통해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감상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화자의 감정을 중심으로 시구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19. <답> ③

<정답률> 50%

<정답 풀이>

㉞는 화자가 한중진미를 느끼는 공간이고, ㉡는 화자가 술을 마시며 일출을 즐기는 공간이다. 화자가 ㉞와 ㉡에서 경치를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㉞와 ㉡를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거쳐인 ㉞를 나와 ㉞와 ㉡로 이동하고 있다.

② ㉡와 ㉡는 고산구곡담의 구곡에 해당한다. 즉 화자가 은거한 ㉞를 구성하는 장소들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④ ‘벽계수 얹피 두고’를 통해 ㉞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㉞는 화자가 은거하고 있는 장소로 ‘주모 복거흐니 벗님네 다 오신다’를 통해 화자가 ㉞에 터를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를 알 수 있다.

⑤ ㉡에서 화자는 ‘청류’를 굽어보고 ‘믹’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에서 화자는 단풍에 둘러싸인 ㉡를 바라보며 경치를 즐기고 있으므로 ㉡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소재의 기능을 묻는 문제이다. 각 장소가 지니는 의미와 화자가 각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20. <답> ⑤

<정답률> 64%

<정답 풀이>

바위를 덮은 ‘눈’은 겨울을 맞이한 문산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것이다. 자연과 합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또한 <보기>의 「송애기」에 대한 설명에서도 자연과 합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서 지인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애기」’를 통해 고산구곡이 작자와 ‘벗님(지인)’들의 교유 장소로도 활용되었음을 추리할 수 있다.

② <보기>의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를 통해 ‘학주자’를 하려는 작자의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추측할 수 있다.

③ <보기>의 ‘그가 고산구곡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이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에서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된 공감이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보기>의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려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를 통해 ‘강학’과 ‘영월음풍’이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위를 유추할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17번과 마찬가지로 <보기>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17번과 달리 철저히 <보기>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가며 풀어야 한다.

[21~26] 독서-인문

[지문 분석]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과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가는 사료를 매개로 과거와 만난다. 사료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사료의 불완전성은 역사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지만, 그 불완전성 때문에 역사학이 학문이 될 수 있으며 역사는 끝없이 다시 서술된다. (사료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 매개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되지 않은 과거와 만날 수 있다면 역사학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역사학은 매개, 즉 사료를 통해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 역사학은 전통적으로 문헌 사료를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유물, 그림, 구전(비문헌사료) 등 과거가 남긴 흔적은 모두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역사가들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자료를 새롭게 사료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역사가들이 하는 일)하기도 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로 다루었던 미시사 연구에서 재판 기록, 일기, 편지, 탄원서, 설화집(서사적 사료) 등의 이른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한 것도 사료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1문단: 사료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학문이 되는 역사학

시각 매체의 확장은 사료의 유형을 더욱 다양하게 했다. 이에 따라 역사학에서 영화(시각 매체의 확장)를 통한 역사 서술에 대한 관심이 일고, 영화를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역사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헌 사료의 언어는 대개 지시 대상과 물리적·논리적 연관이 없는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형식과 의미가 가지는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영화는 카메라 앞에 놓인 물리적 현실을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물질성을 띤다(영화가 언어와 다른 점) 즉, 영화의 이미지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시하는 도상적(어떠한 생각이나 대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기호가 된다. 광학적 메커니즘에 따라 피사체(사진을 찍는 대상이 되는 물체)로부터 비롯된 영화의 이미지는 그 피사체가 있었음을 지시하는 지표적 기호이기도하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영화는 피사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피사체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고양하여(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복돋워서 높이다.) 언어적 서술에 비해 호소력 있는 서술로 비추지게 된다(대상에 대해 언어로 서술하는 것보다 대상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담아내는 것이 더 대상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고 호소력 있음.)

2문단: 문헌 사료의 언어와 영화의 이미지의 차이

그렇다면 영화는 역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영화와 역사의 관계①)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영화와 역사의 관계②)는 영화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두 축을 이룬다.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는 영화라는 매체로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과 연관된다(역사에 대해 영화적 독해를 할 때 사료는 영화임.) 영화인은 자기 나름의 시선을 서사와 표현 기법(영화적)으로 녹여내어 역사를 비평할 수 있다.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영화는 역사적 고증(예전에 있던 사물들의 시대, 가치, 내용 따위를 옛 문헌이나 물건에 기초하여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힘.)에 충실한 개연적(그럴 법한. 또는 그런 것)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혹은 역사적 사실을 자원으로 삼되 상상력에 의존하여 가공의 인물과 사건을 덧대는 상상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단 역사 영화만이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영화는 명시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증언한다.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에 담겨 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것과 연관된다(영화에 대해 역사적 독해를 하는 것은 영화에 담겨 있는 역사를 찾는 것) 역사가는 영화 속에 나타난 풍속, 생활상 등을 통해 역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나아가 제작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욕망, 강박, 믿음, 좌절 등의 집단적 무의식과 더불어 이상, 지배적 이데올로기 같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가려진 역사를 끌어내기도 한다.

3문단: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

영화는 주로 허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 서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일차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자료에 기반해서 연구를 펼치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가는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 서술에서도 허구가 배격되어야 할 대상만은 아니다. 역사가는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 반영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여 사료로

삼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역사가는 자료가 허구적인지 확인하지만 허구적인 자료를 배격하는 것은 아님, 역사가는 조선 시대 소설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발견할 수도 있음.) 지어낸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지만 사고방식과 언어, 물질문화, 풍속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며,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혹은 작가의 의도 이상으로 동시대의 현실을 전달해 주기도 한다(영화가 사료로서 갖는 특성) 어떤 역사가들은 허구의 이야기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서술을 보완하기도 한다. 역사가가 허구를 활용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과거에 접근하고자 하는 고민의 결과이다.

4문단: 역사가가 허구의 이야기를 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영화는 허구적 이야기에 역사적 사실을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대안적 역사 서술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다(사료로서의 영화의 의의) 영화는 공식 제도가 배제했던 역사를 사회에 되돌려 주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형성에 기여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나 증언, 구전 등의 비공식적 사료를 토대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하층 계급, 피정복 민족처럼 역사 속에서 주변화된 집단의 문혀 있던 목소리를 표현해 낸다. 이렇듯 영화는 공식 역사의 대척점(대척점: 반대쪽)에서 활동하면서 역사적 의식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역사 서술의 한 주체가 된다(사료로서의 영화의 의의)

5문단: 사료로서의 영화의 의의

- 주제: 역사 서술의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가능성

[지문 확인]

1문단: 사료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학문이 되는 역사학

- 역사가는 사료를 통해 과거와 만남.
- 사료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함.
- 사료의 불완전성: 역사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지만, 역사학이 학문이 될 수 있게 함.
- 역사가들은 알려지지 않은 사료를 찾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자료를 새롭게 사료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함.

2문단: 문헌 사료의 언어와 영화의 이미지의 차이

- 문헌 사료의 언어: 지시 대상과 물리적·논리적 연관이 없는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
- 영화의 의미지: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 피사체가 있었음을 지시하는 지표적 기호
- 영화는 물리적 현실을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물질성을 띤다.
- 다큐멘터리 영화는 언어적 서술에 비해 호소력 있는 서술로 비추짐.(피사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 피사체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이 고양되기 때문)

3문단: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

-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 영화라는 매체로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함.

-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 영화에 담겨 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함.

4문단: 역사가가 허구의 이야기를 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 역사가는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지만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 반영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여 사료로 삼으려고 노력하기도 함.
- 허구의 이야기는 사고방식과 언어, 물질문화, 풍속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며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혹은 작가의 의도 이상으로 동시대의 현실을 전달해 주기도 함.

5문단: 사료로서의 영화가 가지는 의의

- 사료로서의 영화가 가지는 의의
 - 허구적 이야기에 역사적 사실을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됨.
 - 대안적 역사 서술의 가능성을 지님.
 - 역사적 의식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역사 서술의 한 주체가 됨.

21. <답> ④

<정답률> 89%

<정답 풀이>

이 글은 영화가 지닌 역사를 증언하는 사료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또한 5문단의 ‘영화는 허구적 이야기에 역사적 사실을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대안적 역사 서술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다.’를 통해 역사 서술로서 영화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역사의 개념을 밝힌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영화와 역사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지도 않다.
- ②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의의는 나타나 있지만 영화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4문단에서 ‘영화는 주로 허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 서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며 영화의 허구성이 역사 서술에 지니는 의미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말하고 있지만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한계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다양한 영화의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TIP>

이 문제는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여 읽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22. <답> ③

<정답률> 86%

<정답 풀이>

1문단의 ‘역사가들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사료를 새롭게 사료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기도 한다.’를 통해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는 것은 사료의 발굴이라고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의 ‘재판 기록, 일기, 편지, 탄원서, 설화집 등의 이른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한 것도 사료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를 통해 일기와 같은 개인적인 기록도 사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1문단의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과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가는 사료를 매개로 과거와 만난다.’를 통해 역사가가 활용하는 공식적 문헌 사료는 매개를 거친 과거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 ④ 2문단의 ‘문헌 사료의 언어는 대개 지시 대상과 물리적·논리적 연관이 없는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이다.’, ‘영화의 이미지는 맑은꼴로 사물을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가 된다.’를 통해 문헌 사료의 언어는 영화의 이미지에 비해 지시 대상에 대한 지표성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2문단의 ‘영화의 이미지는 맑은꼴로 사물을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가 된다.’를 통해 카메라를 매개로 얻어진 영화의 이미지는 지시 대상과 닮아있다는 점에서 도상적 기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세부 정보와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내용의 일치 여부를 묻는 문제이지만, 지문의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선지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잘 찾아야 한다.

23. <답> ①

<정답률> 68%

<정답 풀이>

㉠의 사례는 허구의 이야기 속에 반영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사료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사례이며, ㉡의 사례는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역사 서술을 보완하는 사례이다.

㉢. 판소리라는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조선 후기 음식 문화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소설이라는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중국 명나라 때의 상거래 관행을 연구하고자 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17세기 평범한 여성의 심리)를 재현하기 위해 설화집이라는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17세기 평범한 여성의 삶에 대한 역사서를 보완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경전이라는 공식적 사료(허구의 이야기가 아님.)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례이므로 ㉠과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TIP>

이 문제는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과 ㉡에서 허구의 이야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24. <답> ⑤

<정답률> 75%

<정답 풀이>

㉠은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료의 사실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A]는 허구적인 이야기인 영화가 사료의 원천이 될 뿐 아니

라, 대안적 역사 서술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으며,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나 증언, 구전 등의 비공식적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하는 내용으로는 기억이나 구술 증언(평범한 사람들의 회고나 증언)은 거짓이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허구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자료의 사실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⑤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의 관점을 가진 역사가라면 영화가 허구적인 이야기, 즉 많은 사실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것이다.

② ㉠의 관점을 가진 역사가라면 허구를 포함하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자료에 주목할 것이다.

③ 영화가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수단이라는 내용은 ㉠의 관점과는 관련이 없다.

④ ㉠의 관점을 가진 역사가라면 영화가 바탕으로 삼은 주변화된 집단의 목소리의 사실성 여부에 주목할 것이다. 따라서 주관에 매몰된 역사 서술을 문제 삼아 [A]를 비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TIP>

이 문제는 반응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각 선지가 ㉠의 관점과 일치하는지, [A]의 관점과는 반대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5. <답> ②

<정답률> 74%

<정답 풀이>

「서머스비」는 19세기 중엽 미국을 배경으로 하여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영화이다. 3문단의 ‘역사적 사실을 자료로 삼되 상상력에 의존하여 가공의 인물과 사건을 덧대는 상상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역사가는 영화 속에 나타난 풍속, 생활상 등을 통해(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 역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를 통해 가공의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영화인 「서머스비」에서도 이 영화 속에 나타난 19세기 중엽 미국의 풍속, 생활상 등을 해석(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하여 역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의 ‘제작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욕망, 강박, 믿음, 좌절 등의 집단적 무의식’을 통해 「서머스비」에 반영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중의 ‘욕망’은 영화가 제작된 당시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보기>를 통해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실제 사건에 관한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한 영화임을 알 수 있다. 또한 3문단의 ‘영화인은 자기 나름의 시선을 서사와 표현 기법으로 녹여내어 역사를 비평할 수 있다.’를 통해 「마르탱 게르의 귀향」 역시 영화인 나름의 시선이 표현 기법으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실제 사건에 관한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한 영화이다. 3문단의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영화는 역사적 고증(예전에 있던 사물들의 시대, 가치, 내용 따위를 옛 문헌이나 물건에 기초하여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힘.)에 충실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 있다.’를 통해 「마르탱 게르의 귀향」이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의 ‘미시사 연구에서 재판 기록, 일기, 편지, 탄원서, 설화집 등의 이른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한 것’을 통해 재판 기록은 ‘서사적’ 자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역사서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재판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들을 근거로 출간된 것이기 때문에 미시사 연구의 방식을 취해 서사적 자료에 근거하여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과 「서머스비」의 차이점과 각각의 특징, 역사서 『마르탱 게르의 귀향』의 특징을 파악하여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26. <답> ④

<정답률> 93%

<정답 풀이>

㉠ ‘이루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다.’라는 의미이고, ‘결합하다’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을 ‘결합한다’로 바꾸어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 ‘만나다’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눈앞에 대하다’라는 의미이고, ‘대면하다’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하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을 ‘대면할’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 ‘여겨지다’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여기다’의 피동형이고, ‘간주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겨지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을 ‘간주되었던’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 ‘나타나다’는 ‘어떤 새로운 현상이나 사물이 발생하거나 생겨나다.’라는 의미이고, ‘대두하다’는 ‘어떤 세력이나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을 ‘대두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 ‘펼치다’는 ‘생각 따위를 전개하거나 발전시키다.’라는 의미이고, ‘전개하다’는 ‘내용을 진전시켜 펴 나감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을 ‘전개하기’로 바꾸어 쓸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의 단어를 ㉠~㉣의 단어로 각각 대치하고 문장을 읽어보아야 한다. 대치 전과 후 문장의 의미가 이질적이지 않은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7~31] 독서-사회

[지문 분석]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의문문을 통해 독자의 관심 유도)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점유’의 뜻)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소유’의 뜻)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1문단: 점유와 소유의 정의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직접점유의 뜻)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간접점유의 뜻)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반환청구권을 가진 사람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 것임.)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공시하다: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리다.)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함.)

2문단: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권 양도의 요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양도인이 소유자인 경우)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양수인이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어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사흘간 빌려 쓰기로 했으므로),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점유를 넘겨주는 것)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양수인이 당장 직접점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3문단: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선의취득의 뜻)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선의취득이 안 되는 조건)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4문단: 선의취득의 의미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선의취득이 안 되는 조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등록으로 공시됨.)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등기로 공시됨.)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선의취득을 하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5문단: 선의취득을 할 수 없는 대상과 그 이유

• 주체: 물건의 소유권 양도와 소유권 취득이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지문 확인]

1문단: 점유와 소유의 정의

- 점유: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
- 소유: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
-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2문단: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 점유의 종류

직접점유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
간접점유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반환청구권)를 가진 상태(반환청구권을 가진 사람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임)

- 점유의 기능: 소유자를 공시함.
-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됨.

3문단: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

-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기 위한 요건①: 양도인이 소유자인 경우
 -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소유권 양도를 공시함.
 -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 인도(점유를 넘겨주는 것)로 공시됨.
 -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음.

점유개정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반환청구권 양도	반환청구권을 가진(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양도인(소유자)이 직접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소유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반환청구권을 넘기는 것

4문단: 선의취득의 의미

-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기 위한 요건②: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 선의취득
 - 선의취득: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을 때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음.

5문단: 선의취득을 할 수 없는 대상과 그 이유

- 선의취득을 할 수 없는 대상: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

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

-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됨.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됨.
-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남, 이는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하는 것임.

27. <답> ⑤

<정답률> 57%

<정답 풀이>

3문단의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를 통해 소유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시가 이루어져야(공시 방법이 갖춰져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을 통해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하고, 소유는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에 대해 사실상 지배 상태인 것이기 때문에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② 1문단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를 통해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선지의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된다는 것은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의미이다. 3문단의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를 통해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때 소유권 양도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따라서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소유권을 양도를 공시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방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④ 2문단의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를 통해 가방의 소유권을 알게 해 주는 방법이 점유임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세부 정보와 핵심 정보를 묻는 문제이다. 선지 ⑤에서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문에서 ‘소유권 양도를 위한 공시 방법에는 ~가 있다.’와 같이 명확하게 공시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시 방법이 따로 갖춰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문단의 내용을 통해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하는데 소유권 양도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소유권 양도의 공시 방법이 점유 인도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8. <답> ⑤

<정답률> 64%

<정답 풀이>

[A]를 통해 피아노와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점유에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에 의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한다.

<오답 풀이>

① [A]를 통해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직접점유자이며, 물리적으로 지배하지 않지만 반환청구권을 가진 사실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간접점유자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 지배 없이도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② 점유에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가 있는데 두 점유 모두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간접점유 또한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될 수 있다.

③ 직접점유는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간접점유는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하나의 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빌려 주지 않고 직접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동산에 대해서 직접점유자만 있고 간접점유자는 없을 수 있다.

④ 피아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아노를 빌려 준다면 피아노를 빌려준 사람은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되고, 피아노를 빌린 사람은 간접점유자가 된다. 따라서 피아노의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다면 간접점유자가 피아노의 소유자가 된다.

<TIP>

이 문제는 생략된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27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선지의 내용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지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잘 찾을 수 있어야 한다. 27번과 문제 유형은 비슷하지만 지문 전체가 아닌 [A]만 다시 읽으면 되기 때문에 27번보다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29. <답> ②

<정답률> 51%

<정답 풀이>

4문단의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를 통해 ㉠은 선의취득을 인정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문단의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를 통해 선의취득은 거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은 거래 안전이 중시되는 대상이다. 한편 5문단에 따르면 ㉡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으로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은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중시되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5문단에 따르면 ㉢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이다. 따라서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는 것은 ㉠이 아니라 ㉢이다.

③ ㉣은 등기로 공시되는 대상이다. 따라서 점유로 공시될 수 없

다는 것은 맞으나, 물리적 지배 대상이 아니어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④ 4문단의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를 통해 ㉠은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선의취득 대상임을 알 수 있다. 5문단에 따르면 ㉡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적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으로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은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

⑤ 3문단의 ‘㉢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를 통해 ㉢은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으로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없다.

<TIP>

이 문제는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의 앞뒤 문장뿐만 아니라 4문단도 읽어야 한다. 또한 ㉠과 ㉡, ㉢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0. <답> ③

<정답률> 33%

<정답 풀이>

3문단의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와 <보기>의 ‘갑과 을은, 갑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를 통해 갑과 을의 경우가 점유개정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4문단의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를 통해 점유개정은 선의취득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즉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라면 을은 소유권 취득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라면 갑이 을에게 금반지를 넘기지 않고 보관하고 있더라도(점유개정), 을은 금반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은 금반지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의 경우는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인 점유개정에 해당한다. 즉 갑이 금반지 소유자라면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④ 2문단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를 통해 반환청구권을 가진 을은 금반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3문단의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를 통해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인

을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보기>의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를 읽으며 바로 ‘점유개정’을 떠올려야 한다. 또한 <보기>의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를 읽으면서 ‘선의취득’을, <보기>의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를 읽고서는 ‘반환청구권 양도’를 떠올려야 한다. 또한 선지 ③과 ⑤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③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고 ⑤는 적절한 내용인데, ③과 ⑤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1. <답> ①

<정답률> 88%

<정답 풀이>

①에서 ‘일어나다’의 문맥적 의미는 ‘어떤 일이 생기다.’라는 의미이다. ①에서의 ‘일어나다’의 의미가 이와 가장 가깝다.

<오답 풀이>

② ‘환호성이 일어났다.’에서 ‘일어나다’의 의미는 ‘소리가 나다.’이다.

③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에서 ‘일어나다’의 의미는 ‘약하거나 회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이다.

④ ‘경계심이 일어나지’에서 ‘일어나다’의 의미는 ‘어떤 마음이 생기다.’이다.

⑤ ‘부조리에 맞서 일어남으로써’에서 ‘일어나다’의 의미는 ‘몸과 마음을 모아 나서다.’이다.

<TIP>

이 문제는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 때에는 ㉠의 유의어로 대치했을 때 문맥상 어색하지 않은지, ①~⑤에서 밑줄 친 단어의 주어 중 ㉠의 주어와 성질이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32~34] 문학-고전소설

[지문 분석]

‘콩알 하나 없으니 주린 처자(굶주리고 있는 아내 까투리와 자식들)를 어이할꼬? 어뎡든 협사촌의 서대주(도둑질로 부자가 됨, 신흥 부호)가 도적들과 아래위 낭청을 다니며 함께 도적하여 부유하다 하니 찾아가 얻어 보리라.’(식량을 얻기 위해 서대주를 찾아감, 장끼전에서 장끼는 고집 센 가부장적 인물로 그려지지만 이 부분의 장끼는 처자식을 위해 식량을 얻는 가장의 면모를 보여줌.)

하고 협사촌을 찾아간다. 허위허위 이 산 저 산 어정어정 걸어가며 생각하되,

‘이놈이 본디 큰 쥐로 도적질하는 놈이니 무엇이랴 부를꼬? 쥐라 해도 좋지 않고, 서대주라 해도 좋지 않으니, 이놈 부르기 어렵구나. 어뎡든 대접함이 으뜸이라.’(식량을 얻기 위해 서대주를 대접하기로 결심함.)’

길을 재촉해 협사촌을 찾아 서대주 집 문 앞에서 장끼 큰기침 두 번 하고,

“서동지 계시오?”

하며 찾으니, 이윽고 시비 쥐 나오거늘 장끼 문왈,

“이 댁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댁이오?”

물으니 시비 답왈,
“어찌 찾으시오?”
장끼 가로되,
“잠깐 뵈오리다.”
이때 서대주 자녀의 재미 보며 아내와 함께 있더니, 시비 와서
왈,
“문전에 어떤 객이 왔으되 위풍이 현앙(軒昂)*하고 빛갓 쓰고 옥
관자 붙이고(장끼의 외양 묘사) 여차여차 동지 님을 뵈러 왔다 하
나이다.”
서대주 동지란 말을 듣더니 대희하여(장끼가 자신에게 존칭하자
기뻐하는 서대주) 외현으로 청하고, 정주(頂珠) 탕건 모자 쓰고
평복으로 나아가 장끼를 맞아 예하고 자리를 정하니, 장끼 하는
말이,
“댁이 서동지라 하시오? 나는 양지촌 사는 화충이라고도 하고, 세
상에서 부르기를 장끼라고도 혹 평이라고도 하는데, 귀댁을 찾아
금일 만나니 구면처럼 반갑소이다. 한 번도 뵈 적 없으나 평안하
시었소?”
서대주 맹랑하다.(서술자의 개입) 탕건을 어루만지며 답왈,
“존객의 이름은 높이 들었더니 나를 먼저 찾아 누지에 와 주시니
황공 감사하오이다.”
장끼 답왈,
“서로 찾기에 선후가 있는 것 아니니 아무커나 반갑다 못하여 진
저리 나노라.”
하거늘 서대주 웃으며 온갖 음식으로 대접하고 고금사를 문답하며
장끼를 조롱하며 베티더니, 장끼 콧소리를 내며 말하기를,
“서동지께 청할 말이 있노라. 내 본시 녀덱지 못해 오늘까지 먹지
못하다가 처음 청하온데 양미 이천 석만 빌려주시면(서대주 집에
온 목적) 내년 가을에 갚으리니 동지 님 생각에 어떠시오?”
서대주 웃으며 하는 말이,
“속담에 ‘우마(牛馬)도 초분식(草分食)하고, 산저(山猪)도 갈분식
(葛分食)이라*.’ 하였거든 우리 사이에 무엇이 어려우리오?”(장끼
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 줌.)
(중략)
장끼 감사함을 칭사하고 양지촌으로 돌아가니라. 이때 서대주 노
비 쥐를 명하여 창고를 열고 이천 석 콩을 배로 옮겨 양지촌으로
보내니라.
각설. 이때 동지촌에 딱부리란 새가 있으되 주먹뵈에 흑공단 두
루마기,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 자나 하고 위풍이 현앙한
집승(딱부리의 외양 묘사)이라. 양지촌 장끼를 찾아가 오래 못 본
인사 하고 하는 말이,
“자네는 어찌하여 양식이 저리 풍족하여 쌓아 두었는가?”
장끼가 협사촌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 빌린 사연을 자세히 말하
니, 딱부리 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 마음이 녹녹지 아니하거늘 미친한 도적놈(서대주)을 무엇
이라 찾았는가?”
장끼 답왈,
“나도 생각이 있으나 옛글에 ‘교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 했고,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 했고, 내 가난하여 빌리러 갔
기로 저를 대접하여 서동지라 존칭하였더니(식량을 빌리기 위해
서대주에게 서동지라고 존칭함.) 대희하여 후대하고 종일 문답하
며 여차여차하였노라.”
하거늘 딱부리 하는 말이,

“자네 일정 간사하도다. 만일 입신양명하면 충신을 험담하여 귀양
보내고 조정을 농권하며 임금을 어둡게 하리로다. 나는 그놈을 찾
아가서 서대주라 하고 도적질한 말을 하면 그놈이 겁내어 만석이
라도 추심(推尋)* 하리라.”(장끼와 다르게 서대주를 대할 것이라고
말함.)
장끼 답왈,
“자네 재주를 몰랐더니 오늘에야 알리로다.”
딱부리 웃으며 나와 협사촌을 찾아가, 구멍 앞에 나가서 생각은
많으나 이를 갈고 “서대주, 서대주.” 찾으니 이윽하여 시비 쥐나오
며 하는 말이,
“뉘 집을 찾아오시니까?”
딱부리 하는 말이,
“네 명색이 무엇이냐? 이 집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도적질하
는 서대주 집이냐? 나는 동지촌 사는 딱장군이니 와 계시다 일러
라.”
하거늘 쥐란 놈이 골을 내어 대답하고 들어가 고하니, 서대주 크
게 성내고 분부하는 말이,
“어떤 놈이든지 잡아들이라.”
하니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이 명을 듣고 딱부리를 에워싸고 결박
하고 이 뺨 치고 저 뺨 치며 몰아가니 딱부리 애걸하며 비는 말
이,
“내 무슨 잘못이 있다 이리하시오? 내 손주 노릇할 터이니 놓아
주고 달아났다 하시오.”(딱부리가 기세등등하게 서대주의 집에 찾
아갔으나 애걸복걸하게 됨,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간사하게 자신의
태도를 바꿈.)
한데 듣지 않고 잡아들여 서대주 앞에다 꿇리니 서대주 호령하되,
“이놈! 너는 어인 놈이기에 주인 찾을 때 근본을 해하여 찾으니
그중에 너 같은 놈은 만단을 내리라.”
하며 매우 치라 하니 딱부리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하며 빌더라.
- 작자 미상, 「장끼전」 -
*현앙: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함.
*우마도 초분식하고, 산저도 갈분식이라: 소와 말도 풀을 나눠 먹
고, 산돼지도 칩을 나눠 먹는다.
*추심: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

■ 핵심 정리

- 갈래: 국문소설, 판소리계 소설, 우화소설, 의인소설
 - 성격: 우화적, 풍자적, 해학적, 현실 비판적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남존여비사상과 여성의 개가 금지에 대한 비판과 풍자
 - 의의
- ① 여자의 말이라고 까투리의 말을 무시하다가 죽은 장끼와 장끼
가 죽은 뒤 곧바로 개가한 까투리를 통하여, 남존여비와 개가 금
지라는 당시의 유교적 덕목을 비판, 풍자한 국문 소설
- ② 과부의 개가를 막는 봉건 사회의 악습을 우의적 수법으로 풍자
함으로써, 풍자적인 우화소설의 발달에 기여함.

■ 구성

- 발단: 어느 겨울 날, 아들 아홉과 딸 열둘을 거느린 장끼와 까투
리 부부가 먹이를 구하러 산기슭으로 간다. 먹이를 찾아 헤매던
장끼는 먹음직스러운 콩알 하나를 발견하고 기대한다.
- 전개: 까투리는 불길한 꿈 이야기를 들려 주면서 콩을 먹지 말

라고 장끼를 말리지만, 장끼는 여자의 말이라고 무시하며 고집을 부린다.

• 위기: 신중한 까투리가 옛날 현인들의 지혜까지 동원하며 말렸지만, 장끼는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콩알을 먹으려다 밧에 걸린다.

• 절정: 장끼는 죽어 가면서도 까투리에게 수절하여 정렬부인이 되라고 유언하고, 까투리는 장끼의 깃털 하나를 주워다가 장례를 치른다.

• 결말: 장끼의 장례식에 조문을 온 여러 잡새들이 까투리에게 수작을 하며 구혼을 하지만 까투리는 수절을 명분으로 이를 거절한다. 그러나 맘에 드는 홀아비 장끼가 나타나 청혼을 하자 유유상종(類類相從)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개가한다. 재혼한 이들 부부는 아들딸을 모두 시집 장가 보내고 명산대천 구경하며 다니다가 큰 물에 들어가 치위합(稚爲蛤)이라는 조개가 된다.

■ 표현상의 특징

- 풍자적 표현
- 해학적 표현
- 음성 상징어를 통한 표현
- 다양한 계층의 언어 혼용 : 서민의 비속어 + 양반의 한문투
- 중국의 고사가 많이 인용됨
- 당대의 서민 의식이 반영됨
- 반복과 열거를 통한 확장적 문체

■ 주요인물

- ① 장끼 - 봉건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위신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낭패를 보는 인물. 신중하지 못하고 남의 말, 특히 여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 센 가부장적 인물
- ② 까투리 - 남편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소신을 밝힐 줄 아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인물. 조심성 있고 소신이 뚜렷하며 장끼가 죽은 후에는 본성을 좇아 개가하는 자유로운 성향을 보여 주는 인물

■ 전체 줄거리

평은 밭과 들에서 곡식을 주워 먹고 사는데, 포수와 사냥개의 위협을 받곤 한다. 장끼 한 마리가 까투리와 아홉 아들, 열둘의 딸을 데리고 콩을 주우러 다닌다.

이때 장끼가 콩 하나를 발견하고 먹으려한다. 이에 까투리가 나서서 사람의 흔적이 있다면서 수상하다고 만류한다. 하지만 장끼가 자꾸 먹으려하자 까투리는 지난 밤 꿈이 좋지 않다고 한다. 이에 장끼는 지난 밤 꿈에 옥황상제가 산림처사에 봉해주고, 콩 한 섬을 주셨다고 한다. 까투리는 자신의 꿈에는 무지개가 칼이 되어 장끼의 목을 베었다고 한다. 장끼는 그 꿈은 장원 급제하여 어사화 두 가지를 머리에 꽂고 거리를 활보할 꿈이라고 한다. 까투리는 또 천근들이 무쇠 가마를 장끼의 머리에 씌우고 깊은 물에 빠뜨린 꿈을 꾸었다고 한다. 이에 장끼는 그 꿈은 자신이 대장이 되어 투구를 쓰고 압록강을 건너 중원을 평정할 꿈이라고 한다. 까투리는 또 꿈에 잔치 중에 장대가 부러져 우리들의 머리를 덮쳤다고 한다. 그리고 별이 하나 떨어져 장끼의 별 앞에 걸렸다고 한다. 이에 장끼는 장막이 덮인 것은 우리 둘이 등걸을 베개 삼고, 갈잎을 이불 삼아 텅굴 꿈이라고 한다. 그리고 별이 떨어진 것은 아들을 얻은 꿈이라고 한다. 까투리는 또 꿈에 청삽사리가 나타나 삼

밭으로 도망가는데 삼대가 쓰러져 몸을 감았다고 한다. 장끼는 이에 까투리의 먹살을 잡고 치며 그 꿈은 다른 남자와 즐기다가 벌을 받는 꿈이라고 한다. 까투리는 다시 장부의 조심, 군자의 엄치 등 백이숙제와 장자방의 예를 들면서 콩을 먹지 말라고 한다. 이에 장끼는 엄치 보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문숙과 한신의 예를 든다. 까투리는 또 옛글에 고집 피우다 패가망신한 진시황과 초패왕의 예를 든다. 이에 장끼는 이름에 콩 태 자 든 사람은 귀하다고 하며 천황과 태호 복희씨, 한태조, 당태종, 강태공, 이태백의 예를 든다.

장끼는 결국 콩을 먹으려 가는데 밧에 걸리고 만다. 이에 까투리는 여자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이라면서 애통해한다. 장끼는 까투리에게 맥을 짚어 보라고 하고 눈청을 살피라고 하는데 곧 죽을 것이라고 답한다. 장끼는 까투리를 달래며 정렬부인이 되어 달라고 한다. 이후 밧 주인이 나타나 장끼를 들고 간다. 까투리는 제사를 지내는데, 두루미가 초헌관을 제비가 접빈객을 앵무새가 진설을 따오기가 축문을 맡는다. 이때 갈까마귀가 나타나 까투리에게 청혼하는데 까투리는 거절한다. 또 부영이가 나타나 자신을 어른으로 대접하지 않는 까마귀를 책망한다. 이에 부영이와 까마귀가 다툰다. 이때 또 외기러기가 나타나 자신이 제일 어른이라고 한다. 한편 물오리는 통혼도 하지 않은 장끼를 신부로 맞으려 한다. 그런데 다른 장끼 한 마리가 와서 까투리에게 청혼하자 까투리는 그 장끼와 혼인하기로 한다. 이에 모든 손님들이 날아가버린다. 다음 해에 장끼 부부는 아들, 딸들을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명산대천에서 노닐다가 큰 물 속에 들어가 조개가 되었다.

■ 이해와 감상

‘장끼전’은 원래 판소리 열두 마당 중의 하나인 ‘장끼 타령’으로 불리다가 그 전승이 끊어지면서 창(唱)을 잃어버리고 대본인 가사만 남아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또한 인격화된 평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며 현실 세계에 대한 우의적(寓意的)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우화 소설에 해당한다. 이 작품은 모두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장면을 통해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첫째는 먹이를 찾아 나선 장끼 부부가 먹음직한 콩을 발견하고 먹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벌이는 장면이다. 이를 통해 남자의 권위주의적 의식과 우월 의식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둘째는 밧에 치여 죽어 가는 장끼의 행동이 매우 해학적으로 그려진 장면이다. 장끼는 죽어가면서도 가부장적 권위를 지키려 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 우월 의식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셋째는 까투리의 개가(改嫁) 장면이다. 장끼의 장례식에 문상을 온 온갖 새들이 차례로 까투리에게 구혼하지만 수절을 명분으로 거절하다가, 홀아비 장끼가 문상을 오자 수절을 팽개치고 유유상종이라는 명분으로 개가한다. 이는 남존여비와 개가 금지라는 당시의 유교적 도덕률을 비판하고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은 당대 남성의 권위주의적 의식과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비판, 여권 신장, 인간의 본능적 욕구의 중시라는 조선 후기의 서민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2. <답> ①

<정답률> 78%

<정답 풀이>

‘딱부리란 새가 있으되 주먹뵈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 자나 하고 위풍이 현양한 짐승이라.’를 통해 세밀

한 외양 묘사를 통해 위풍이 현양한 ‘딱부리’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서대주 맹랑하다’에서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인물의 행동에 대해 호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우마도 초분식하고, 산저도 갈분식이라.’와 ‘교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 등과 같이 속담이나 옛글이 삽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도 않고, 인물의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고 있지도 않다.

⑤ ‘길을 재촉해 협사촌을 찾아 서대주 집 문 앞에서 장끼 큰기침 두 번 하고’와 ‘장끼 감사함을 칭사하고 양지촌으로 돌아가니라.’를 통해 이 글의 배경이 협사촌의 서대주의 집과 양지촌의 장끼의 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두 배경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있지도 않다.

<TIP>

이 문제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선지의 내용을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눠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지 ③의 경우 ‘속담과 옛글이 삽입되었는지’와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는지’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전자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후자의 조건은 충족하지 않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된다.

33. <답> ⑤

<정답률> 70%

<정답 풀이>

장끼는 양미 이천 석을 빌리기 위해 서대주를 방문하였다. 즉 장끼의 서대주를 방문하는 목적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다. 또한 ‘나는 그놈을 찾아가서 서대주라 하고 도적질한 말을 하면 그놈이 겁내어 만석이라도 추심(推尋)하리라.’라는 딱부리의 말을 통해 딱부리는 서대주를 협박하여 만석(아주 많은 곡식)을 받아내기 위해 서대주를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끼와 딱부리 모두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서대주를 방문하였다. 딱부리는 서대주가 도적질한 것을 협박하려고 했을 뿐, 별로 다스리고 교화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장끼는 ‘협사촌의 서대주가 도적들과 아래위 낭청을 다니며 함께 도적하여 부유하다 하니 찾아가 얻어 보리라.’라고 하며 서대주를 방문한다. 따라서 장끼는 서대주의 정체가 ‘도적질하는 놈’임을 알고 서대주를 방문한 것이다. 또한 딱부리는 장끼가 협사촌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 빌린 사연을 듣고 서대주를 ‘미친한 도적놈’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딱부리 역시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서대주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장끼는 ‘어떻든 대접함이 으뜸’이라고 생각하여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서대주를 대접하기(장끼가 계획한 서대주를 대할 방식)로 결심한다. 한편 딱부리는 서대주를 협박(딱부리가 계획한 서대주를 대할 방식)하여 곡식을 받아내기로 결심한다. 따라서 장끼와 딱부리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서대주를 대할 방식을 계획한 것이다.

③ 장끼는 서대주를 방문하여 시종 일관된 태도로 서대주를 대접하였다. 반면 딱부리는 처음에는 고압적인 태도로 서대주를 대하

다가, 서대주에 의해 결박되어 뺨을 맞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서대주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하며 빈다. 따라서 장끼는 시종 일관된 태도를 보였고 딱부리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다.

④ 장끼는 서대주의 거처에 도착하여 “이 댁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댁이오?”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장끼는 서대주의 환심을 살 만한 말로 서대주의 거처를 확인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딱부리는 서대주의 거처에 도착하여 “이 집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도적질하는 서대주 집이냐?”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딱부리는 서대주의 반감을 살 만하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작품의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장끼와 딱부리가 서대주를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며 지문을 읽었다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34. <답> ④

<정답률> 78%

<정답 풀이>

서대주의 ‘시비 쥐’는 서대주의 종이므로 신홍 부호가 아니다. 또한 서대주의 ‘시비 쥐’가 딱부리에게 골을 내는 이유는 딱부리가 서대주를 ‘도적질하는 서대주’라고 무례하게 말했기 때문이지 딱부리의 경제적 곤궁함을 업신여겼기 때문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장끼가 ‘콩알 하나 없으니 주린 처자를 어이할꼬?’라고 말하며 서대주에게 양식을 빌리러 가는 모습에서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즉,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는 몰락 양반의 면모를 알 수 있다.

② ‘서대주 동지란 말을 듣더니 대희하여 외현으로 청하고, 정주(頂珠) 탕건 모자 쓰고 평복으로 나아가 장끼를 맞아 예하고 자리를 정하니’를 통해 서대주가 복색을 갖추어 손님을 ‘외현(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에서 맞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대주로 대변되는 신홍 부호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③ 딱부리는 서대주를 대접하여 양식을 빌린 장끼에게 ‘자네 일정 간사하도다.’라고 말하며 장끼를 비판하였다. 이를 통해 신홍 부호(서대주)에 대한 처신을 놓고 몰락 양반 간(장끼와 딱부리)에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서대주가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에게 명령하여 딱부리를 결박하는 장면을 통해 향촌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홍 부호(서대주)가 시비 종을 수십 명이나 둘 정도로 위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보기>를 먼저 읽은 후 지문을 읽었다면 지문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보기>의 ‘신홍 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은 서대주와 딱부리의 갈등, ‘신홍 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불화’는 장끼와 딱부리의 갈등에 해당함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5~37] 문학-현대시

[지문 분석] (가)

호르 호르르 호르르르(청각적 심상, 가을 벌레 우는 소리) 가을

아침(계절적, 시간적 배경)

취어진* 청명(=청천, 가을 하늘)을 마시며 거닐면

수풀이 흐르르 벌레가 흐르르르(대구법, 청각적 심상, 가을 아침에 대한 화자의 인상)

청명은 내 머릿속 가슴속을 젖어 들어
발끝 손끝으로 새어 나가나니

온 살결 터럭 끝은 모두 눈이요 입이라(온 살결 터럭 끝을 눈과 입으로 삼아 자연을 대함, 인간과 자연의 교감)

나는 수풀의 정을 알 수 있고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나도 이 아침 청명의

가장 고요지 못한 노래꾼이 된다(수풀과 벌레의 소리를 듣고 화자도 청명함의 노래꾼이 됨, 자연과 인간 간의 유대감)

수풀과 벌레는 자고 깨인 어린애라

밤새워 빨고도 이슬은 남았다(수풀과 벌레를 밤새 어미 젖을 뺀 어린애로 비유)

남았거든 나를 주라

나는 이 청명에도 주리나니(화자는 수풀과 벌레와 달리 배가 부르지 못함.)

방에 문을 달고 벽을 향해 숨 쉬지 않았느뇨

햇살이 처음 쏟아오아

청명은 갑자기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햇살이 쏟아지는 순간의 아름다운 모습 표현)

그때에 토록(동백알이 빠지는 소리) 하고 동백 한 알은 빠지나니

오!(감탄사 사용으로 직접적으로 영탄의 감정을 드러냄) 그 빛남 그 고요함

간밤에 하늘을 쫓긴 별살의 흐름이 저러했다(아침 햇빛을 밤의 별빛에 대응시킴, 자연 빛의 아름다움을 극찬함.)

온 소리의 앞 소리요

온 빛깔의 비릇이라(자연을 ‘온 소리의 앞 소리’, ‘온 빛깔의 비릇’으로 표현함, 근원적 존재로서의 자연의 가치)

이 청명에 포근 취어진 내 마음(시의 주제: 가을 아침의 정취에 포근하게 젖어 든 감흥)

감각의 낮익은 고향을 찾았노라

평생 못 떠날 내 집을 들었노라(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 리듬감 형성)

- 김영랑, 「청명」 -

*취어진: 계절의 정취에 젖어 든.

■ 핵심 정리

- 성격: 자연친화적
- 주제: 가을 아침에 느끼는 자연에 대한 감흥
- 특징
 - ① 순수하고 맑은 이미지 활용
 - ② 감탄형 종결어미의 반복
 - ③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짐

■ 이해와 감상

수풀과 벌레는, 어린애가 어미 젖을 먹듯 밤새 이슬을 빨아 배가 부르지만 시의 화자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궁색해 보이지 않으며 '으리으리'한 광채의 관을 쓰고 있는 듯 부유하고 여유롭기까지 하다. 시인은 그 이유를 '방에 문을 달고 벽을 향해 숨쉬'고 있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방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벽이 있고 문을 달고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벽을 향해 숨쉴 수 있는 축복이야말로 배부른 축복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남았거든 나를 주라. / 나는 이 청명에도 주리나니'는 주리고 있는 사람의 궁색한 청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햇살', '으리으리한', '빛남', '별살'등의 어휘가 환기하는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는 밝고 명랑한 광명에 차 있으며, '토록'하고 동백 알 빠지는 양성모음의 소리 또한 경쾌하고 영롱하게 들린다. 우리는 보통 동백 알이 빠진다고 하지 않고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인이 '동백 한알은 떨어지나니'라 하지 않고 굳이 '빠지나니'라고 한 것은 '떨어지다'란 말이 환기하는 추락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는 '빠지나니'에서 마치 암탉이 알을 낳듯이 동백나무가 동백알을 낳는 형상을 무의식 속에서 연상하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김영랑은 동백 잎사귀와 햇살의 윤기, 마치 '으리으리한 관을 쓴' 듯 빛남과 고요함으로 알이 빠지듯 영롱한 소리를 내며 빠지는 동백알의 형용에 참지 못하고 '오!'라는 한 음절로 축약된 감탄사를 발한다. 그리고 거기서 문득 '간밤에 하늘을 쫓긴 별살의 흐름이 저러했다'고, 밤 하늘을 굶고 지나가던 긴 유성의 흐름과 그 빛을 생각해 낸다.

[지문 분석] (나)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봄날의 생동감, 의인법)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청각적 이미지, 봄날을 맞이한 자연, 의인법)을 듣고

푸른 햇살(시각적 이미지)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청유형 어미)

달려가선, 거기 미루나무에게 전하니

알았다 알았다(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 봄날의 풍경)는 듯 나무는 잎새를 흔들며

강물 위에 잘랑잘랑(음성상징어, 청각적) 구슬알(봄비)을 쏟아냈다 하자.

그 의중 알아챈 바람이 이젠 그 누구보다

앞들 보리밭에서 물결치듯(직유법, 보리밭에서 김을 매는 여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 김을 매다

이마의 구슬땀(건강한 노동으로 흘리는 땀, 구슬알과 대응) 씻어 올리는 여인에게 전하니,

여인이야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곤

눈앞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끄덕, 무언가 일별(일별: 한 번 흘끗 봄)을 보냈다 하자.(자연과 인간의 조응)

아무려면 어떤가.(시적 화자의 목소리, 어떤 것이든 다 좋다는 의미) 산과 강과 들과 마을(열거)이

한 초록으로 짙어가는 오월(시각적, 봄날의 계절감)도 청청한 날에,

소쩍새는 또 바람결에 제 한 목청 다 신는(청각적, 봄날의 계절감)

형상화) 날에.

-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순수시
- 운율 : 내재율
- 성격 : 서경적, 묘사적, 감각적, 낭만적
- 심상 : 시각적 심상
- 구성 : 나열식 구성, 공간의 이동(뒷동산 솔나무 → 강변 미루나무 → 앞뜰 보리밭 여인 → 마을 정자나무)
- 주제 : 오월의 봄의 생동감과 자연과 인간의 조응(照應)

■ 특징

- 자연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 시적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자연과 인간의 조응을 음성 상징어를 통해 표현함.
- 봄날의 생동하는 자연과 노동하는 인간의 조화를 그려냄.
- 미완으로 시를 마무리 지어 시적 여운을 줌.
- 감각적 이미지로 시상을 종결지음 .

■ 제목의 의미

‘초록 바람의 전언(傳言)’은 바람을 의인화한 표현으로 봄의 정취와 풍경을 바람이 전하는 말이란 뜻이다.

■ 해제

이 시는 오월의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산과 강, 들로 이동하는 봄바람의 흐름을 시상으로 하여 쓴 서정시이다. 봄을 맞은 자연물들의 생기 넘치는 모습을 서로 대답하고 호응하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그것이 인간에게까지 이어져 봄의 아름다운 풍경과 생명력을 다양한 감각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35. <답> ②

<정답률> 80%

<정답 풀이>

(가)에서는 ‘-노라’, (나)에서는 ‘-자’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취어진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에 가정의 진술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에서도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④ (가)에서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 있지 않다. (나)에서 ‘뒷동산’, ‘강변’, ‘보리밭’, ‘마을’로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 또한 (나)의 계절적 배경은 5월인데,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에서 종교적 관념에 대한 사색은 나타나 있지 않다. (나)의 주제는 ‘봄을 맞이한 자연의 생동감’이다. 이러한 주제를 일상 생활에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TIP>

이 문제는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표현상 특징에는 시상

전개 방식, 운율 형성 방법, 수사법 등이 있다.

36. <답> ③

<정답률> 91%

<정답 풀이>

㉡의 ‘이 청명에 포근 취어진 내 마음’은 청명한 가을날에 화자가 느끼는 마음이다. 화자의 마음을 ‘감각의 낮익은 고향’을 찾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나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은 ‘호르르’, ‘호르르르’라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산뜻한 가을 아침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② ㉢에서 햇빛이 처음 쏟아지는 순간을 청명이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청명한 날이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는 비유를 활용하여 햇빛이 쏟아지는 순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④ ㉣은 바람이 부는 강변의 풍경을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라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은 청청한 날의 정경에 대한 화자의 반응(어떤 것이든 다 좋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화자의 반응을 제시하며 시적 상황에 대한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TIP>

이 문제는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이 문제도 3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선지의 내용을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눠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지 ①의 경우 ‘청각적 심상을 활용했는지’와 ‘산뜻한 가을 아침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표현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37. <답> ④

<정답률> 85%

<정답 풀이>

(가)의 ‘그때에 토록 하고 동백 한 알은 빠지나니 / 오! 그 빛남 그 고요함 / 간밤에 하늘을 쫓긴 별살의 흐름이 저러했다’에서 화자는 ‘동백 한 알’이 빠지는 것을 보고 ‘하늘을 쫓긴 별살의 흐름’이 저러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화자가 ‘동백 한 알’이 떨어진 모습에서 ‘하늘’의 ‘별살’을 떠올린 것은 대상의 유사성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나)도 마찬가지로 (나)의 화자가 ‘잎새’의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알’을 떠올린 것은 대상의 유사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와 (나)의 화자의 연상이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의 질서를 보여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온 살결 터럭 끝은 모두 눈이요 입이라 / 나는 수풀의 정을 알 수 있고 /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를 통해 (가)의 화자가 ‘온 살결 터럭 끝’을 ‘눈’과 ‘입’으로 삼아 자연(수풀, 벌레)을 대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간의 교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의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를 통해 ‘바람’과 ‘청솔잎’의 교감, 즉 자연과 자연 간의 교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화자는 ‘수풀의 정’과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에서는 ‘바람’이 ‘무어라’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미루나무’에게 전하자 ‘미루나무’는 ‘알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조화로운 생태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에서 화자는 ‘수풀’이 ‘호르르’하는 소리와 ‘벌레’가 ‘호르르’하는 소리를 듣고 ‘나도’ 청명함의 ‘노래꾼’이 된다고 하고 있다.

⑤ (가)에서 화자는 자연을 ‘온 소리의 앞 소리’, ‘온 빛깔의 비롯’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근원적 존재로서의 자연의 가치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 한 초록으로 질어가는 오월’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가는 생태 공동체를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감상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이 문제도 34번과 마찬가지로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었다면 (가)와 (나)의 내용 및 주제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38~41] 독서-기술

[지문 분석]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지형 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한다.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이다.(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의 개념)

실외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위성항법장치)나 IMU(관성측정장치)를 사용한다.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GPS의 측정 방법: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로부터 측정함.)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고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GPS를 사용했을 때의 단점).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IMU의 측정 방법: 위치 변화를 계산하여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측정함.)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IMU의 장점)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IMU의 단점) 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다.

1~2문단: 실외에서의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방법- GPS와 IMU

한편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실내에서의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방법)이 있다.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이다.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비콘의 단점) 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도달 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의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한다. 이 신호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문단: 실내에서의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방법- 비콘

근접성 기법(비콘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①)은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여러 비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삼변측량 기법(비콘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②)은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한다.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경우에는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측정한다.

위치 지도 기법(비콘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③)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측정 공간을 많은 구역으로 나눌수록 기준점이 많아짐.)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한다. 그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 이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 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지도(측정 공간 안의 특정 위치에서 수신된 신호 세기와 식별 번호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은 것)로 기록해 놓는다.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에서 수행한다.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 비콘의 식별 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 준다.

4~6문단: 비콘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 - 근접성 기법, 삼변측량 기법, 위치 지도 기법

• 주제: 스마트폰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

[지문 확인]

1~2문단: 실외에서의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방법 - GPS와 IMU

-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통해 위치를 측정함.
- 위치의 종류
 - 절대 위치: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
 - 상대 위치: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
- 실외에서의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방법

	GPS	IMU
측정 방법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함.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상대 위치를 측정함
장점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음.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
단점	-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함. -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려움.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짐.

3문단: 실내에서의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방법 - 비콘

-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

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음.

- 비콘: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
- 비콘의 측정 방법: 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도달 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의 수신기가 비콘 신호를 인식함.
- 비콘의 단점: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짐.

4~6문단: 비콘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 - 근접성 기법, 삼변측량 기법, 위치 지도 기법

- 비콘 신호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근접성 기법, 삼변측량 기법, 위치 지도 기법이 있음.
- 근접성 기법
-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함.(단, 여러 비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함)
- 삼변측량 기법
-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함. →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함.(단,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경우에는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이 단말기의 위치로 측정됨.)
- 위치 지도 기법
- 측정 공간의 구역을 나눠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을 설치함. →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함. → 신호 세기와 식별 번호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함.(위치 지도) →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에서 수행함. → 특정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 비콘의 식별 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함. →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줌.

38. <답> ⑤

<정답률> 59%

<정답 풀이>

2문단의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를 통해 IMU는 단말기가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의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이다.’와 2문단의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를 통해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 위치가 아니고 절대 위치임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의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를 통해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활용하는데 이때 비콘으로

부터 수신된 신호는 동일한 세기의 신호이다. 따라서 비콘들이 서로 다른 세기의 신호를 송신해야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내용이다.

③ 6문단의 ‘이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 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지도로 기록해 놓는다.’,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 비콘의 식별 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된다.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 준다.’를 통해 비콘이 전송하는 식별 번호는 비콘이 설치된 위치를 구별해 단말기가 속한 구역의 기준점의 위치를 찾기 위한 정보임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의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이다.’를 통해 비콘이 실내에서 신호를 통해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신호가 GPS 신호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2문단의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를 통해 실내에 설치된 비콘은 GPS 신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비콘이 GPS 신호를 받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 지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으며 근거 문장이 2개 이상인 선지가 많으므로, 선지의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여 지문에서 근거 문장을 잘 찾아야 한다.

39. <답> ⑤

<정답률> 76%

<정답 풀이>

2문단의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를 통해 IMU의 오차가 커지는 것은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할 때 생기는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2문단의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고’와 ‘IMU는 ~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커지는 것은 IMU이며, 전파 지연으로 인해 오차가 생기는 것은 GPS임을 알 수 있다.
- ② 2문단의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를 통해 GPS의 사용 시간과 오차가 정비례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③ 2문단의 ‘IMU는 ~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를 통해 IMU의 오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짐을 알 수 있다. 또한, 2문단을 통해 순간적인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GPS임을 알 수 있다.
- ④ 2문단의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를 통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GPS 신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터널

을 통과하는 동안 오차를 보정할 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인과 관계, 상관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지문 전체를 읽어야 풀 수 있는 38번 문제와 달리, ‘오차’에 해당하는 내용인 2문단만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오답인 선지의 대부분에 GPS의 특성과 IMU의 특성이 반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GPS와 IMU의 차이점을 잘 파악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40. <답> ③

<정답률> 45%

<정답 풀이>

6문단의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된 뒤 비콘의 식별 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 준다.’를 통해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기준점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6문단의 ‘위치 지도 기법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한다.’를 통해 나뉜 구역이 많을수록 기준점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6문단의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된 뒤 비콘의 식별 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 준다.’를 통해 서버는 단말기가 전송한 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해당 기준점을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말기가 측정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④ 6문단의 ‘위치 지도 기법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한다. ~ 이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 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지도로 기록해 놓는다.’를 통해 비콘을 이동하여 설치하면 정확한 위치 측정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 각 기준점별 비콘 신호의 세기를 다시 기록(갱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6문단의 ‘위치 지도 기법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한다. 그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 이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 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지도로 기록해 놓는다.’를 통해 위치 지도는 측정 공간 안의 특정 위치에서 수신된 신호 세기와 식별 번호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세부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39번과 마찬가지로 지문 전체가 아닌 ‘위치 지도 기법’에 해당하는 6문단만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39번보다 추론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추론적 사고를 더 요하는 문항이다.

41. <답> ③

<정답률> 41%

<정답 풀이>

<보기>에서 각 원의 반지름은 신호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이다.(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절대적인 거리가 아님.) 3문단의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를 통해 ㉑에 위치한 장애물은 단말기와 비콘 3 사이에 있기 때문에 신호의 세기가 약해져 비콘 3이 중심인 원이 실제보다 크게 그려졌음(실제 비콘3과 단말기의 거리보다 멀게 그려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4문단의 ‘여러 비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를 통해 근접성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의 위치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 1의 위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5문단의 ‘삼변측량 기법은 ~ 원을 그리고,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를 통해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의 위치는 세 원의 교점인 P가 단말기의 위치임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의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와 5문단의 ‘삼변측량 기법은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한다.’를 통해 신호 세기가 강하면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가 가깝게, 신호 세기가 약하면 거리가 멀게 환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측정된 신호 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비콘 3, 비콘 2, 비콘 1의 신호 순이다.

④ ㉑에 위치한 장애물은 단말기와 비콘 3 사이에 있기 때문에 신호의 세기가 약해져 비콘 3이 중심인 원은 실제보다 크게 그려진 것이다. 따라서 ㉑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비콘 3의 신호 세기가 강해져 비콘 3이 중심인 원의 반지름이 작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단말기의 위치인 세 원의 교점이나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이 P 방향과 반대 방향인 비콘 3의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비콘 3의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⑤ 3문단과 5문단을 통해 신호 세기가 강하면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가 가깝게, 신호 세기가 약하면 거리가 멀게 환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 2의 신호 세기만 약해진다면, 비콘 2가 중심인 원의 반지름이 커질 것이다. 이로 인해 단말기의 위치인 세 원의 교점이나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은 비콘 2 방향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TIP>

이 문제는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보기>의 각 원의 반지름이 신호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임을 파악한 후, 신호 세기가 강하면 비콘과 단말기의 거리가 가깝게, 신호 세기가 약하면 거리가 멀기 환산된다는 것을 파악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42~45] 문학-현대 소설

지옥(남의 자서전을 대필해 주는 인물)은 차츰 선생(최상운, 자서전 대필 의뢰인)의 그런 신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지옥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압박감이 그를 못 견디게 짓눌러 왔다.(서술자가 중심인물인 지옥의 내면 심리를 묘사함.) 믿음이 논리를 초월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논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신념은 맹목적인 아집에 그칠 위험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선생의 신념은 털끝만큼 한 자기 회의마저 용납을 하지 않고 있었다. 회의가 없는 신념은 맹목적인 자기 독단에 흐를 위험 또한 큰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지옥이 그에게 소망해 온 어떤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지옥은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하는 사람,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원함.)으로는 치명적인 결함일 수 있었다. **회의**(지옥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가 없는 자서전이야말로 영락없이 한 거인의 동상에 불과할 뿐이었다. 지옥이 최상운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 자신 최상운 선생에게서와 같은 어떤 의식의 경화 현상을 싫어해 온 성격 이외에도, 그와 같은 위험성을 어슴푸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 그보다도 지옥이 더더욱 그 선생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의 너무나도 일상불란한 언동이나 생활 방식에서 오히려 어떤 씻을 수 없는 가식의 냄새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한 인간의 생애에서 이처럼이나 말끔하게 후회나 의구가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간간하고 결백스런 노인에게서라도 어찌 따뜻한 아랫목과 좋은 음식에 대한 바람이 전혀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엄격한 극기의 세월이었던들 그것이 어찌 감히 사람의 가장 사람다운 욕망까지를 송두리째 근멸시켜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노인은 어찌하여 그것을 끝끝내 시인하려 들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진실로 그의 부끄러움이 될 수는 없단 말인가—

(중략)

“이거 아무리 **맘에 없는 옷을 팔아먹고 사는 무식쟁이**(코미디언인 피문오)라고 누구한테 지금 설교를 하려는 거야 뭐야, 건방지게. 그래 내가 지금 당신 같은 위인의 신세 하소연이나 듣자고 이런 텔 찾아온 줄 알아? 그렇게 내가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말야. 왜 **내 일**(자서전을 대필하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그걸 말해 보라는 거야. 이유를……”(지옥이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거절한 이유를 듣기 위해 피문오가 지옥을 찾아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반말 투로 욱박질러 오는 피문오 씨의 어조에 지옥은 새삼 가슴이 내려앉는 표정이었으나, 이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피문오 씨의 행패는 견잡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게 아니라니? 아니 이거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날 바보 취급하고 나설 테야? 당신 눈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얼렁뚱땅 되잖은 소리로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보인 모양이지? 그래, 뭐가 어째? 내 일을 하지 않게 된 게 내 탓이 아니구 당신의 그 알량한 양심 때문이라구? 내가 그래 그 알량한 당신의 양심에 들러리라도 서야 한다는 거야 뭐야. 업어치나 메치나 그게 그놈 아들놈 같은 소릴 가지고, 정 내게 말재간을 한번 부려 보고 싶어서 이래? 당신 눈엔 이 피문오가 그래 그만 말귀도 못 알아들을 바보 멍청이로만 보이느냐 말야? 내 아까부터 참자 참자 하다 보니 이 친구 아주 형편없이 맹랑한 데가 있는 작자로구만 그래.”

피문오 씨는 이제 스스로도 분을 참을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벌건 얼굴에 튀어나올 듯 두 눈알을 부라려 대면서 장갑을 몰아 왼편 손가락을 피스톤처럼 마구 지옥의 턱 앞으로 내질러 대고 있었다.

지옥은 그만 기가 콕 질리고 말았다. 무슨 말을 할래도 목이 말라 소리가 되어 나오질 않았다.(피문오에게서 수모를 당하는 지옥이 항변도 못하고 주눅이 들.) 그는 부들부들 떨려 오는 두 다리를 간신히 버티고 선 채 절망적인 눈초리로 피문오 씨의 폭풍우 같은 수모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었다.

불현듯 최상운 선생의 일이 이 처참스런 곤욕을 견뎌 낼 수 있는 어떤 서광처럼 머릿속으로 떠올라 왔다. 최상운 선생과의 약속이 그의 참을성에는 상당한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이런 자**(피문오)의 자서전 따위 대필하려 했다니! 최상운 선생과 같은 분에게 조차 내 주관을 굽힐 수 없었던 이 지옥이 아닌가. 이런 자의 책을 쓰면서 그의 밑구멍을 훑느니 차라리 선생의 발밑에라도 나가 엎드려 선생의 신념을 찬미함이 낫지 않느냐. 참자! 작자의 일을 피하자면 이쯤 굴욕은 즐거이 참아 넘기자. 참아서 넘겨야 한다—

하지만 피문오 씨는 그 정도로는 물론 분통이 풀릴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어디 선생! 말씀을 좀 해 보시라구. 아니 글에서는 것처럼 잘난 체 말이 많더니, 제 잘난 소리나 시부렁거릴 줄 알았지 선생도 남의 말을 알아듣는 텐 귀가 콕 멀어 버리셨나. 왜 통 대답이 없으셔? 그렇담 내가 좀 더 수고를 해 주실까? 어째서 내 일을 하지 않게 되었느냐, 내 일을 하기가 싫어졌느냐…… 그 이유 좀 더 솔직하게 말해 달라 이거야. 이 무식한 놈도 좀 분명하게 알아듣고 납득이 가게끔 말씀이야. 알아들어?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겠다면 내 좀 더 똑똑히 말을 해 줄까?”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는 지옥을 마음 내키는 대로 매도해 대다 말고 피문오 씨는 무슨 생각을 해 냈는지 갑자기 목을 잔뜩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청승맞도록 능청스런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외쳐 대기 시작했다.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들 고칩시다아— 채권 삽니다아— 부서진 우산이나 빈 병 삽니다아— 자서전이나 회고록들 쓰십시다아—**”(지옥이 생각하는 자서전의 가치를 폄하하여 지옥을 우롱하고 있음.)

고저단속(高低斷續)을 적당히 조화시켜 가며 길게 외쳐 대고 난 피문오 씨가 이제 좀 알아들었느냐는 듯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지옥을 이윽히 건너다보았다.

—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다」 —

■ 핵심 정리

- 갈래: 현대, 단편, 연작 소설
- 성격: 비판적, 우의적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참된 글쓰기의 의미

■ 해제

이 작품은 남의 자서전을 대필해 주는 일을 하는 인물인 지옥을 통해 참된 글쓰기의 의미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지옥의 대필 행위는 말이나 글이 인간의 의도나 이념 실현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지옥은 자신의 과거 상처와 실패조차도 미화하고 싶어 하는 코미디언 피문오, 세상을 자신의 방법대로 외곽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최상운에 대한 자서전 쓰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청준이 자신의 문학적 작업을 두고 ‘자기 구제의 한 몸짓’이라고 표현하였듯이, 이 소설에서도 참된 자서전 쓰기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행하는

일이며, 그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 전체 줄거리

수많은 사람들의 자서전과 회고록을 대필하며 그럭저럭 지내 온 지옥은 실체도 없이 언어를 부리는 글쓰기에 회의를 느낀다. 결국 인기 코미디언 피문오 씨의 자서전 대필 작업을 단념하기로 하고 그에게 사죄의 편지를 부친다. 그리고 진정한 글쓰기에 대한 기대를 안고 회고록 대필을 요청한 최상운 선생을 만나러 버스에 오른다. 산간벽지에서 오랜 세월 10만 평의 황폐한 야산을 옥토로 개간한 최상운 선생을 만나 그의 생활과 주변사를 둘러보지만 아집에 가까운 선생의 견고한 신념을 확인하고는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지옥은 생각할 여유를 달라는 말과 함께 서울로 돌아온다. 그러나 집에서 지옥을 기다리고 있던 피문오 씨를 만나게 되고, 피문오 씨는 대필 작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대라며 행패를 부린다. 피문오 씨에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지옥은 최상운 선생을 떠올린다. 그리고 만인의 찬양을 받으려는 최상운 선생에게는 진정한 자기 성찰이나 고백에의 용기가 없음을 깨닫는다. 피문오 씨가 돌아가고 홀로 남은 지옥은 ‘자서전들 쓰십시오.’라는 환청에 넋을 빼앗긴다.

42. <답> ②

<정답률> 88%

<정답 풀이>

윗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윗글의 서술자는 최상운, 피문오와의 일로 인해 겪는 지옥의 심리적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가 중심인물 지옥의 내면을 묘사하며 인물이 처한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윗글에서 빈번한 장면 교차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윗글의 서술자는 이야기 내부에 있지 않다. 또한 서술자가 사건의 원인을 추리하고 있지도 않다.

④ 윗글에서 인물 간의 대화가 나타나 있긴 하지만,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윗글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가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TIP>

이 문제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윗글의 서술자와 중심인물을 파악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43. <답> ⑤

<정답률> 65%

<정답 풀이>

피문오는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지옥이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이유’를 듣고자 한다. 피문오가 ㉠과 같이 말한 것은 자신이 지옥의 자서전 대필 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똑똑하게 말해 주겠다고 한 뜻이지, 지옥에게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 것을 독촉하는 뜻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피문오는 지옥이 자신의 자서전 대필이 지옥의 ‘알량한 양심’때문이며 ㉡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는 피문오가 양심 때문에 자

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지옥의 말을 무시하고자 하는 경멸의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이다.

② 피문오는 지옥이 자신을 바보 멍청이로 보며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지옥에게 ㉢과 같이 말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③ 피문오에게 수모를 당한 지옥은 기가 질려 ㉤과 같은 상태가 되어 항변도 못하고 주눅이 든다.

④ 피문오는 ㉠과 같이 말하며 지옥에게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대답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TIP>

이 문제는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에 담긴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44. <답> ③

<정답률> 72%

<정답 풀이>

지옥은 인간의 생애에서 말끔하게 후회나 의구가 없는 것, 사람의 가장 사람다운 욕망을 근절시켜버리는 것을 모두 가식이자 부끄러움으로 보고 있다. 즉 ‘결백’과 ‘엄격한 극기’가 가식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엄격한 극기’로 ‘부끄러움’ 없이 ‘결백’하게 사는 것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지옥은 최상운의 논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회의가 없는 ‘신념’에 ‘압박감’을 느끼며 이러한 ‘신념’이 맹목적인 ‘자기 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최상운의 자서전 대필을 거절한다. 따라서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기 독단’이 강할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찬 태도로 ‘신념’을 내세우는 것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지옥은 ‘회의’가 없는 자서전은 한 거인의 동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의식의 경화’를 경계하며 ‘회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스스로 ‘회의’하며 ‘의식의 경화’를 경계할 줄 아는 것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지옥은 자신에게 ‘반말 투로 욕박’지르는 피문오의 자서전 대필을 하는 것은 밑구멍을 뚫는 일이라며 피문오의 자서전 대필을 거절한다. 따라서 자서전을 쓰라고 ‘반말 투로’ 작가를 ‘욕박’지르는 것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⑤ 피문오는 지옥에게 지옥의 ‘알량한 양심’ 때문에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거절하냐고 말하며 자신은 그 양심의 들러리가 아니라고 욕박지르고 있다. 작가를 존중하지 않고 작가의 ‘양심’을 ‘알량’하다고 여기고 자신은 ‘들러리’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TIP>

이 문제는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지옥이 최상운과 피문오의 자서전 대필을 왜 거절하였는지, 지옥이 생각하는 자서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45. <답> ①

<정답률> 83%

<정답 풀이>

피문오가 ㉠과 같이 말한 이유는 자서전을 쓰는 일이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를 고치는 일, 채권을 사는 일, 부서진 우산이나 빈병

을 사는 일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피문오는 자서전 대필이 이러한 상행위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지옥이 생각하는 자서전의 가치를 폄하하여 지옥을 우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피문오는 자서전을 상품으로 팔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문오가 지옥에게 자서전을 상품으로 팔기 위한 방법을 직접 보여 주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③ 피문오가 자신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와 같이 말한 것은 아니다.

④ 피문오는 자서전 쓰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지옥에게 요청하고 있지도 않다.

⑤ 피문오는 지옥의 자서전 쓰기에 소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를 위해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TIP>

이 문제는 인물의 성격과 태도를 묻는 문제이다. 윗글에 나타난 피문오의 심리를 파악하였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